

碩士學位論文

# 脫北 青少年의 再社會化 教育方案 研究

— 初等學校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高 性 俊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黃 銀 實

2001年 8月

# 脫北 青少年의 再社會化 教育方案 研究

— 初等學校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高 性 俊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1年 4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 專攻



提出者 黃 銀 實

黃銀實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1年 7月 日

審 查 委 員 長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국문초록]

## 탈북 청소년의 재사회화 교육방안 연구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황 은 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지도교수 고 성 준

탈북 주민들 수의 급증에 따라 탈북 청소년과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은 남한의 학교에 적용해 가면서 남한 사회에서의 삶의 방법을 터득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많은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학교에 잘 적응해 가면서 삶의 방법을 터득하도록 돕기 위한 이른바 '재사회화 교육방안'을 탐구해 본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탈북 청소년들의 현황 파악에서 시작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남한 학교 부적응 실태와 그 원인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교육방안의 모색에 앞서 통일독일의 사례를 검토하여 他山之石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재사회화 교육의 기본방향을 통일대비라는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정체성 교육, 민주시민 교육, 평화교육, 민족공동체 교육이라는 이념적 지표를 설정하는 한편, 특히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실천적·단계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단계적 접근이란 탈북청소년만의 특별반 운영, 남한 학생들과의 연합활동, 탈북 학생의 남한의 일반학급으로의 편입이라는 세 가지 순차적 과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 탈북청소년만의 특별반 운영을 위한 실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안·제시하여 보았다.

탈북 초등학생들의 바람직한 학교 적응을 위한 방안을 요약·제시해 두기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 학생의 학교적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특설 학급을 신설하여 일반 학급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초적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탈북 학생반에서만 학습하다가 갑자기 일반 학급에 편입하도록 하면, 급격한 학습환경의 변화에 따른 또 다른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평소부터 일반 학급의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우 관계, 사회성의 발달, 일반 학급에서의 활동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탈북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해서는 탈북 학생반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교육과정의 개발이 따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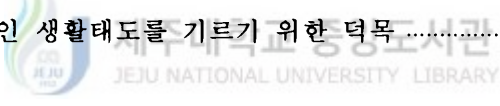
\* 본 논문은 200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목 차

<b>I. 서 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중점과 방법 .....	3
<b>II. 탈북 주민(청소년)의 현황과 지원정책</b> .....	7
1. 탈북 주민(청소년)의 현황 .....	7
2. 탈북 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 개요 .....	11
<b>III. 탈북 청소년의 남한 학교 부적응과 그 원인 분석</b> .....	18
1. 입국 직후의 적응 과정과 문제점 .....	18
2. 탈북 청소년의 남한 학교 적응 실태 .....	21
3. 남한 학교 부적응의 원인 분석 .....	33
<b>IV. 통일독일의 구 동독 청소년의 재사회화 사례 분석</b> .....	38
1. 구 동독 청소년의 통일사회 부적응 양상 .....	38
2.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적 접근 사례 .....	52
3. 통일독일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	55
<b>V. 탈북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 방안</b> .....	58
1. 재사회화 교육의 기본 방향 .....	58
2. 교육의 실천적·단계적 접근 방안 .....	62
3. 탈북 청소년만의 특별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구안 .....	66
<b>VI. 요약 및 제언</b> .....	76
참 고 문 헌 .....	79
Summary .....	82

## 표 목 차

<표 II-1> 연도별 탈북 주민 수 및 국내 거주 현황 .....	9
<표 II-2> 직업별 연도별 탈북 주민 추이 .....	10
<표 II-3> 국내 입국 당시의 연령별 탈북 주민 현황 .....	10
<표 II-4> 민간단체의 국내 탈북자 사회정착지원현황 .....	16
<표 III-1> 국내 거주 탈북자의 현재 직업 분포 .....	19
<표 III-2> 남·북한의 교육 비교 .....	35
<표 V-1> 탈북 청소년만의 특별반 학습 프로그램 .....	68
<표 V-2> 통합 교육과정 구성 .....	69
<표 V-3> 탈북 청소년만의 특별반 기본학습태도 훈련 .....	72
<표 V-4> 기본적인 생활태도를 기르기 위한 덕목 .....	75



## 그림 목 차

<그림 II-1> 연도별 탈북 주민 입국자 추이 .....	8
<그림 III-1> 국내 거주 탈북 주민 소득 수준 .....	19
<그림 IV-1> 동독의 학교제도 .....	40
<그림 IV-2> 서독의 학교제도 .....	42
<그림 IV-3> 바이에른주의 학교제도 .....	43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북한을 이탈하는 이른바 탈북 주민<sup>1)</sup>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단위로 북한을 이탈하는 등 그 형태와 방법도 달라지고 있고, 북한이탈의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 청소년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의 원인은 무엇보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러한 이유만이 아닌 경우도 없지 않다.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북한을 이탈한 탈북 주민들이 부푼 꿈을 가지고 그 정착지로 남한을 선택하지만, 그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해 가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탈북 주민들의 사회적응 문제는 비록 언어와 문화가 동질적인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것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이주하여 적응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지난 50년간의 분단 상황은 사회 구조와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남북간의 이질화를 심화시켰기 때문에, 획일화된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살아온 탈북 주민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점은 부모들을 따라 남한으로 온 탈북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탈북 청소년들은 이제부터 남한의 학교에서 삶의 방법을 터득해 나가야 하는데, 남북한간의 학교제도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학교 적응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짐작된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탈북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 1)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들을 현재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으로 호칭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 주민 자신들은 이 호칭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귀순자'라는 호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탈북자' 외에 '귀순용사', '귀순동포', '자유북한인', '탈북 동포', '탈북 귀순자', '탈북 이주자', '탈북 난민'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탈북자'로 칭하고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탈북자'란 용어를 사용하겠다. 따라서 청소년으로서 북한을 이탈한 사람은 탈북 청소년이라고 칭하겠다.

의미를 갖는다.<sup>2)</sup> 첫째,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북한 이탈 청소년 자신들을 위해서 중요하다.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의 주변부에서 부적응자로 머무르는 것은 일차적으로 탈북 청소년 자신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 탈북 청소년의 부적응은 남한사회에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들이 남한 사회의 부적응자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남한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탈북 청소년의 부적응은 북한 주민 및 북한 집권층에게 남한에 대한 부정적 선전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 북한집권층은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서 적절하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선전할 수 있으며, 북한 주민들도 탈북 청소년의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남한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남한 주도의 통일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될 것이다.

넷째, 탈북 청소년의 남한 사회적응은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남북한 청소년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민족구성원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 사회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통일 후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적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선행학습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탈북 청소년의 남한 사회적응 문제는 남한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수반되는 복잡한 문제와 통일 후 겪게 될 사회 통합의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이에 대한 남한 주민의 물질적·정신적 부담 및 자세에 대해서 자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의 학교에 편입하여 실제 어떤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심리적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울러 그들로 하여금 학교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우면서 남한의 체제와 문화에 재 입문하도록 하는 이른바 '재사회화' 교육 방안<sup>3)</sup>을 강구해 보는 것은 더

2) 박종철외 2인(199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pp. 2-3 내용을 편집함

3) 여기서 '재사회화'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계기로 하여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회화'가 개인의 성장 발달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변화과정이라고 한다면, '재사회화'는 사회적인 환경의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생각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탈북 청소년의 남한의 학교생활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해 보려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사회적응의 문제에 있어 도덕성과 사회성의 발달단계상 가장 사회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탈북 초등학생들을 위한 재사회화 교육방안과 그 구체적 실천 프로그램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중점과 방법

사실 탈북 주민의 문제에 관한 연구들은 그 동안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주로 탈북 주민들의 남한 사회적응 실태와 문제점 파악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다.<sup>4)</sup> 그리고 다른 하나는 드러난 문제점을 치유하는 즉, 탈북 주민의 남한사회 적응방안과 관련된 연구들이다.<sup>5)</sup> 이 연구는 당연히 후자의 예에 속하는 것이 될 것이다.

변화로 인하여 개인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재사회화가 발생하는 계기는 인권운동, 여성운동, 또는 다른 사회로의 이주, 이민과 같은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다. 한만길(1997), 「탈북 이주자의 재사회화 과정」,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379~380쪽 참조. 한편, 사회화와 재사회화 과정이 사회환경과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과 발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면, '교육'은 보다 계획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회화 대상들에게 주어지는 기획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재사회화 교육방안'이라는 용어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 4) 민병천(1980), 「월남귀순자의 자유사회 적응과정 실태 조사」, 서울:통일원; 김영수(1996), 『탈북귀순자 남한사회적응 실태조사』 (서울: 통일연수원); 박종철·김영운·이우영(1996),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오혜정(1995),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훈, "탈북 북한 주민 체제적응 현황과 과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민족통일연구소·해외민족연구소 공동 주최 통일정책 대토론회, 1996. 11. 1.; 선한승(1995), 『북한 탈북 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정책 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박희정(1998), "탈북여성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정미(1999), "탈북 여성의 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장혜경·김영란(2000), 「탈북 주민 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 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 5) 독고순(1999),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 주민 적응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그러나 탈북 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방안을 다루는 기존연구들이 비교적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탈북청소년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면서 남한의 사회와 문화에 입문할 수 있는가 하는, 보다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들은 아직까지 거의 없는 형편이다.<sup>6)</sup> 아마도 탈북 주민들과 관련한 일반적이고 거시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다 구체적인 문제에는 관심을 돌릴 여가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탈북 청소년과 학생들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보며<sup>7)</sup>,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의 남한 사회 적응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학교 적응 실태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학교 교육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입각해 설정한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 청소년의 현황과 지원정책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탈북 청소년의 남한 학교 적응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구동독 청소년에 대한 통일독일의 교육 실천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넷째, 탈북 청소년(특히 초등학생)의 학교 및 남한사회 적응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방

---

과 박사학위논문, ; 전우택·민성길·이만홍·이은설, “북한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6(1), 145-161쪽; 김경호(1997) “탈북 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손주환(1998), “탈북 주민 문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명화(1998) “탈북 주민의 실태 및 적응대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진(1998) “탈북 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국방관리학 석사학위논문; 전우택, “통일 이후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까? - 남북한 사회통합 방안,” 한국사회문화연구원 심포지엄 「남북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길: 탈북자들의 사회적응을 중심으로」, 2000년 5월 10일 등의 연구 참조.; 민성길·전우택, “사람의 통일: 정신의학적 접근,” 송자·이영선 편, 『통일사회로 가는 길』 (서울: 오름, 1995), 72-110쪽; 전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 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연세대 통일연구원) 1(2), 109-167쪽; 윤인진(1999),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제33집, 511-549쪽

6) 그렇다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전우택(2000), “탈북 아동·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오름), 110~130쪽.

7) 물론 탈북주민들의 정착지원을 돕는 교육기관인 ‘하나원’과 같은 곳에서 청소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본론에서 보겠지만, 그것은 매우 빈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학교에 들어오도록 하고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안은 무엇인가?

이상의 과제를 다룸에 있어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이다. 말할 것도 없이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사회 적응과 관련한 문제도출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경험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가 살고 있는 지역적 한계상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실태파악보다는 적응과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방안의 모색에 있기에 경험적 연구를 못하는 것이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큰 결함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실태 파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육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연구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특히 교육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이 연구가 고려하는 주 대상은 탈북 초등학생이다. 이 점은 이 연구의 한계인 동시에 장점도 될 것이다.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 교육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데, 연구자의 능력상 여기까지는 연구영역을 넓히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은 도덕성과 사회성의 발달 단계상 매우 중요한 초기 사회화의 단계에 있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방안은 훨씬 의미 있는 탐색이 되리라 본다. 이렇게 대상범위를 좁힘으로써 더 구체적인 실천적 교육 프로그램의 구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여긴다.

논의의 순서를 간략히 밝혀 두기로 하면, 먼저 2장에서는 탈북 주민(청소년)들의 규모와 거주 현황을 다루면서 그 다양화 추세를 다루고자 한다. 아울러 급증하고 다양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탈북 주민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지원정책들의 개요를 살피고자 한다. 3장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 학교 적응 실태와 그 적응상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탈북 주민의 입국 초기 적응과정과 문제점,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 학교 적응상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살피고, 그 부적응의 원인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4장에서는 5장의 교육방안 모색에 앞서 통일독일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통일독일 사회에서 구동독 청소년들의 통일사회 부적응의 실태와 문제를 살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일독일의 재사회화 실천 사례를 살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도출해 본다. 5장에서는 3장에서의 문제

점 도출과 4장에서의 독일사례를 참고하면서 탈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재사회화의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특히 탈북 초등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실천적 교육의 프로그램을 구안해 볼 것이다. 끝으로 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



## II. 탈북 주민(청소년)의 현황과 지원정책

이 장에서는 탈북 주민(청소년)들의 규모와 거주 현황을 다루면서 그 다양화 추세를 다루고자 한다. 아울러 수적으로 급증하고 질적으로 다양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탈북 주민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들에 대한 개요를 살피고자 한다.

### 1. 탈북 주민(청소년)의 현황

#### 1) 규모와 거주 현황



탈북 주민들의 국내 입국추세는 1993년까지는 연평균 10여명 내외였으나,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도를 기점으로 연간 50여명 정도로 증가하다 1999년에는 148명, 2000년에는 312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98년 이후 해마다 2배 이상 급증하는 추세다.<sup>8)</sup>

특히 1999년부터는 100명이 넘는 탈북자가 국내에 입국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 체류 탈북자의 규모가 증가된 까닭도 있지만, 입국경로가 이전에 비해 다양화되었고 또, 먼저 입국한 가족이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입국을 하는 것도 중요한 증가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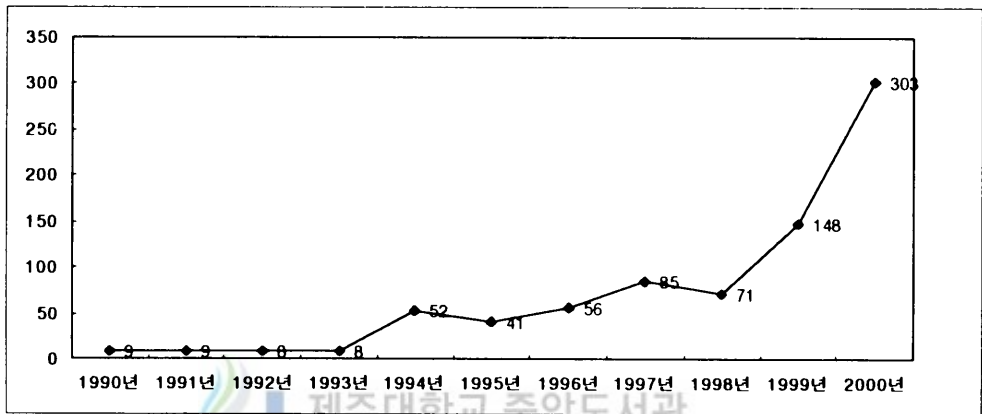
탈북 현상이 이처럼 제도화되고 보편화되면서 탈북자들의 배경 특성은 예전의 20~30대 중심의 군인 출신으로부터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출신 지역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바뀌어가고 있다. 특히 가족단위 입국자와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10대 이하의 청소년층과 50대 이상의 장년층 비율이 증

8) 조선일보 2001년 4월 23일

9)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홈페이지 <http://www.dongposarang.or.kr/>

가하였다. 곧 북한이탈 현상과 탈북 주민 배경특성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탈북의 가속화’, ‘남한 입국경로와 방법의 다양화’, ‘탈북 주민 신분의 다양화와 가족동반 입국자 증가’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입국자 추이를 보면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연도별 탈북 주민 입국자 추이(통일부 2000년 11월 30일 현재)



위에서 보듯이 국내 입국 탈북 주민의 수는 98년 이후 가파른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미 2000년 1월 1일 이후 11월 30일까지 303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 들어 탈북 주민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1999년 한 해에만 148명이 입국하였고 2000년 입국자 수는 11월30일 현재 303명으로 1999년에 비해 2배 이상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급격한 증가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sup>10)</sup> 총 입국자 가운데 이민이나 사망자를 제외하고 2000년 11월30일 현재 국내 거주 탈북 주민의 수는 1,078명에 이른다(<표 II-1>).<sup>11)</sup>

10)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홈페이지 <http://www.dongposarang.or.kr/>

11) 해외체류 탈북 주민의 경우 1990년대 이후부터 북한의 식량·경제난 등이 심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식량획득 목적의 단순 탈북자를 제외하면 약 2,000~ 3,000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탈북 주민 대부분이 식량 등을 구할 목적으로 일시적인 탈북이므로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불법 입국한 외국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이들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국내송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한편,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 주민은 대부분이 별목·건설현장을 이탈한 후 러시아 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집수리 등을 해 주며 은신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탈북 주민에게 합법적인 신분은 인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한국으로의 입국을 원하는 경우에는 유엔난민고등판

## 2) 탈북 주민의 다양화 추세

탈북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면서 북한, 중국, 남한을 연결하는 사회적 연결망이 형성되어서 이 연결망을 통해 정보와 재원이 교류하게 되는데<sup>12)</sup> 최근의 탈북은 국내외의 사회적 연결망을 따라 이동하는 연쇄이동의 성격이 강하다. 실제로 최근 1~2년 사이에 국내로 입국한 탈북 청소년들의 반 수 이상은 이미 국내에 부모, 형제, 친척 등의 연고를 갖고 있다고 한다. 아래의 <표 II-1>에서처럼 1999년에 148명이 국내에 입국한 것을 볼 때 이는 해외체류 탈북 주민의 규모가 증가된 이유도 있지만 입국경로가 다양화되고 먼저 입국한 가족이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13)</sup>

<표 II-1> 연도별 탈북 주민 수 및 국내 거주 현황

구분	'89 이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12. 21.	총입국자	사망	이민	국내 거주
인원	607	9	9	8	8	52	41	56	85	71	148	303	1,397	185	34	1,078

출처 :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 내부자료;

<http://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0/003000000200012211457696.htm>

탈북 현상이 이처럼 제도화되고 보편화되면서 탈북자들의 배경 특성은 예전의 20~30대 중심의 군인출신으로부터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출신지역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바뀌어가고 있다. 특히 가족단위 입국자와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10대 이하의 청소년층과 50대 이상의 장년층 비율이 증가하였다. 계층배경에서는 비록 당·정무원, 외교관, 지도원 등의 소위 엘리트계층의 입국이 증가하였지만 별목

무관실(UNHCR), 국제적십자사(ICRC)의 협조를 통해 국내로 입국할 수 있도록 비공식적인 협조를 해주고 있다(통일부, 1999, 「98 통일백서」).

12)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 주민의 수가 늘어나면서 국내 정착 탈북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불법입국을 알선하는 한국·중국연계조직이 생겨나 최근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들 브로커조직에 탈북 주민들이 지불한 돈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정착금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정착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사회적응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1/005000000200101041010315.htm>)

13) 통일부 (2000), 「거주지보호 실무편람」, p. 195.

공, 노동자, 농장원 등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탈북자들의 전반적 배경 특성의 하향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의 유형이 더욱 다양화되고 적응과정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가족단위 입국자들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과 장년들의 사회적응 속도의 차이로 인한 세대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표 II-2>와 <표 II-3>).<sup>14)</sup>

<표 II-2> 직업별 연도별 탈북 주민추이

직업	'89 이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11. 30.	총계
별목공·노동자·농장원	94	1	4	3	3	37	24	28	28	36	71	136	465(33.3%)
군인	244	3	0	0	1	3	6	5	1	5	5	31	304(21.8%)
해외상사원·외교관·지도원	3	3	1	1	1	1	3	3	8	2	11	21	58(4.2%)
당·정무원·교사	11	0	3	3	1	5	4	5	14	5	14	13	78(5.6%)
기타·학생·무직	113	2	1	1	2	6	3	14	34	23	47	100	346(24.8%)
자수간첩·전향	142	0	0	0	0	1	1	0	0	0	0	-	144(10.3%)

출처 : <표 II-1>과 동일

<표 II-3> 국내 입국 당시의 연령별 탈북 주민 현황

연령	10세 미만	10-19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89년 이전	0	107	289	127	57	22	5
90년 이후	24	29	127	150	39	28	19

출처 :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 내부자료, 2000년 7월

위 표에서 보듯이, 탈북 청소년의 입국 당시 연령분포는 10세 미만에서 20세 미만의 층이 20%에 아르고 있다.

14) 북한이탈주민후원회(2000), "북한이탈주민의 이해와 자원봉사", p. 10-11.

입국 유형에서도 가족을 동반한 입국 사례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

## 2. 탈북 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 개요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은 현재까지 별도로 마련된 것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 탈북 주민 지원정책과 탈북 청소년 지원정책을 연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1) 법·제도적 차원 지원정책

1962년 이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군보안기관이 월남귀순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맡아왔다. 1962년 원호처를 주무부서로 지정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 제정되었고, 1974년 이 법이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으로 대체되었다. 그 이후 1978년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는 귀순자들을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해 국가유공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정책적 차원의 배려를 하였다.<sup>15)</sup>

귀순자들에 대한 이러한 배려는 냉전의 종식과 탈북 주민의 증가에 따라 심각하게 재고되기 시작하여 1993년 6월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귀순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차원의 배려보다는 독립적 생활능력이 결여된 자에 대한 사회부조적 차원의 특별보호로 정책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점에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 탈북 주민들의 정착지원에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sup>16)</sup>, 정부는 1996년 말 통일원내 「인도지원국」을 신설하여 탈북 주민 전담업무를 맡도록 하고 1997년 1월 「탈북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

15) 이금순(1999),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통일연구원, p. 87.

16)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은 총괄전담부서의 부재 및 보호단계별 부처간 업무의 단절성, 제3 국내 탈북자 보호대책 미비, 보호시설내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체계적인 사회적응 교육 및 직업훈련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7월 14일부터 새로운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탈북 주민 정책을 실행하여 왔다.

「탈북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탈북 주민대책협의회 설치, 1년간 시설보호, 보호시설의 설치,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 및 자격 인정,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2년간 거주지 보호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물질적 보상 위주의 정착지원에서 자립·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등으로 전환하는 지원체계 특성을 갖는다. 이후 탈북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1998년 12월 「탈북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탈북 주민 거주지 편입시 초기 정착에 필요한 물질적 기반 조성을 위해 정착금 등 지원을 강화하였다.<sup>17)</sup> 즉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정착금 지급 상한액을 대폭 상향조정 (1인 가족 기준 월 최저임금의 80배인 2,900만원 지급) 하고 주택지원금은 당초 11평 내지 17평에서 13평 내지 25평으로 현실화하여 지급 (임대보증금 : 945~1,575만원)하였다. 또한 정착지원금 수준이 비교적 낮았던 '94-'98년 사회편입자 중 생계곤란자 (173세대)에 특별생계보조금 (20-35만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직업 훈련시 훈련비 전액 지급 및 훈련기간 중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수당 (15-51만원)을 지급하고 자격 및 학력인정 확대 등을 통한 취업기회를 확대하였고 교육지원 신청자의 연령을 조정(중·고교 만25세, 전문대학 및 대학교 만35세)하였다. 이와 함께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정착지원시설을 건립(1999년 7월 개원)하는 등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실시 등 사회정착 지원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 2) 정착지원시설로서 '하나원'

정부는 최근 탈북 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1999년 7월 8일에 '하나원'<sup>18)</sup>을 개원하였다. 이는 탈북 주민들에 대

17) 통일부(2000), 전거서, p. 125.

18)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국내 탈북 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6년 12월 15일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정착지원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1997년 7월14일 '탈북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여

한 사회 적응 교육을 보다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탈북 주민들의 사회적응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장소의 제약과 계층별, 연령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로 체계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sup>19)</sup>

탈북 주민(가족)들은 국내에 입국하여 단계를 거친 후 보호관리단계로 통일부의 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3개월)과 직업훈련(6~8개월)을 받게 되어 있다. 사회적응교육은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 및 문화적 이질감 해소, 실생활 현장체험 교육에 중점을 두고 3개월간의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한다.

정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자가 사회적응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고 10여명 단위로 순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전산, 운전교육, 조리, 미용 등의 직종에 대한 기초 직업훈련 및 직업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내 보호기간 동안 학력·자격·경력·희망 등을 감안하여 능력과 적성에 맞는 훈련직종을 선택하도록 하여 1인1자격증 취득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6~7개월 동안 정착지원시설 인근 직업훈련기관, 공·사립학교 및 기업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서독의 '긴급구호소'<sup>20)</sup>와 비교해 볼 때 하나원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들의 직업안정을 위한 충분한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이 부족한 형편으로 단지 사회적응이라는 기본적인 교육만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다.

또한 정서순화, 법질서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한 생활지도 및 관리실시 그리고 교육 수료 후 거주지 편입을 위한 각종지원 (취직, 취학, 사회 및 종교단체와의 자매결연, 가재도구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정착지원시설 내에서 각 개인에 대한 심

---

정착지원 시설의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9년 7월 8일에는 비로소 경기도 안성에 100명 수용 규모의 정착지원시설 '하나원(남과 북, 우리 민족,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는 뜻)'이 개원되었는데, 이 시설은 단순한 숙소로서가 아니라 탈북 주민의 자립, 정착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19) 이상만(2000),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평가 방향」, 중앙대학교민족통일연구소, p. 44.

20) 긴급구호소는 동독 탈주자 및 이주자를 위한 시설로 베를린의 마리엔펠데에 위치하고 있다. 통독이후 현재 이곳은 구 소련과 러시아에서 온 독일계통 독일인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리·건강 등 개별 생활상담 및 지도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고, 종교활동을 통한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교실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나원의 적응교육프로그램은 아직 제반 여건상 탈북 주민의 개인의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탈북 주민의 배경 (연령, 북한내의 학력 및 경력, 탈북경로 등)이나 증가하고 있는 탈북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교육내용 (기본교육과 소양교육의 내용)이나 대상 (여성, 청소년 등)에 따라 기본의 성인대상 중심의 사회적응교육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민간지원 차원의 지원 단체

탈북자에게 다양한 수준과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남한 청소년과의 자유로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들이 하나원과 협력하여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21)</sup>

#### (1) 북한이탈주민후원회<sup>22)</sup>

탈북 주민들이 사회 편입후 이들의 남한생활 적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1999년 5월 18일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내에 종합생활상담센터를 개소·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홈페이지(<http://www.dongposarang.or.kr>)도 개설되어 탈북

21) 북한이탈주민후원회(2000), 전계서, p. 80

22)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탈북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정부의 예산과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다. 후원회는 탈북 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사회적응 지원사업, 해외탈북자 지원사업, 기금조성사업, 탈북 주민 지원 민간단체협력, 탈북 주민 종합생활상담센터 운영, 탈북 주민 취업지원 및 고용정보센터 운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종교·언론·경제계·이북도민회 이사진 38명을 기능별로 4개 분과위원회(사회적응분과, 취업분과, 결연 및 해외분과, 그리고 홍보 및 기금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동 후원회는 업무 및 명칭상 이탈주민의 후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으나 탈북자들 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사단체들조차도 탈북자에 대한 전문지원 프로그램이 없이 일회성 재정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이금순, 1999).

주민관련자료 및 사이버 소식지를 비롯하여 사이버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후원회는 탈북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각종 어려운 사항을 청취하여 정부, 지원단체, 전문기관들과 연결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남한사회에 하루빨리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후원회 내의 종합생활상담센터는<sup>23)</sup> 소장과 상담요원 3명으로 구성되어 이들은 취업, 심리건강상담 및 의료지원, 생활안정지원 및 가정문제 상담을 각각 담당한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탈북 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종교, 민간단체, 전문기관 등 각계와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민간단체지원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1999년 11월 3일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sup>24)</sup>를 발족하였다.

## (2) 그 외

국내 입국 탈북 주민 및 탈북 주민가족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현황과 지원내용은 다음 <표Ⅱ-4>과 같다.<sup>25)</sup>

민간단체의 지원 현황을 보면 개신교를 중심으로 탈북 주민에 대한 결연사업, 재정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중국 내에서 교회단체의 보호를 받았기 때

23) 종합생활상담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999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안내)

- 취업문제상담 : 취업, 재취업, 취업연장, 창업, 투자상담/영농정착 주선-고향마을, 통일 전국 민족회 등/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 심리, 건강상담 및 의료지원 : 건강, 심리프로그램 대상자 파악, 운영/심리안정 상담/기타의료지원상담
- 자매결연 및 생활안정 지원 : 종교, 민간단체 결연/장학, 생활지원 등 필요한 분야 지원 단체와의 결연
- 장학, 가정문제 상담 : 취학, 장학지원 상담/법률, 결혼, 육아, 기타 가정생활상담
- 생계 곤란자 지원 : 생계지원대상자 선정, 통일부, 후원회 대상자 추천
- 후원 위로행사 초청 등

24) 자세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홈페이지 (<http://www.dongposarang.or.kr>)→민간단체협의회 자료실(설립목적, 창립선언문, 소속단체/ 주요활동) 참고. 협의회 소속 민간단체의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홈페이지가 없거나 마련중인 곳은 제외).

고향마을 (<http://www.cross21.co.kr>), 두레마을 (<http://www.doorae.co.kr>), 북한인권시민연합(<http://www.nkumanringhts.or.kr/>),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http://www.ksm.or.kr>), 좋은벗들(<http://www.blue.nownuri.net>),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http://taiwha.or.kr>), 통일민족건국회(<http://www.keunnara.co.kr>),한국기독교총연합회(<http://cck.or.kr/nambuk>), 한국인성개발연구원(<http://user.chollian.net/~manam1/>), 밥퍼 <http://babper.co.kr>)

25) 국외 탈북자 지원단체는 제외하였다.

문이기도 하지만 개신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탈북자 선교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천주교의 탈북자 지원프로그램은 민족화해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탈북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종교를 초월한 순수한 인간적 만남으로 상담 및 각 계층별 지원프로그램(여성, 청소년, 대학생)의 진행과, 인적·물적 결연과 경조사 협조 등의 활동, 그리고 탈북자들이 각 복지관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유도하여 남한사회를 이해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직접서비스 제공 단체인 중앙대 부설 사회복지관 등은 탈북자 가정을 대상으로 재가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북한인권시민연합은 하나원 방문 자원봉사,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1:1 가이드 결연을 통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인성개발연구원과 하나로교육복지연구회는 상담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II-4> 민간단체의 국내 탈북자 사회정착지원 현황

단체 성격	단체명	지원 내용	단체 배경
결연협력 후원단체	탈북 주민후원회	민간단체통합-조정/민간단체정부협력 창구	통일부관계법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교회결연 알선	개신교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교회결연 알선	개신교
직접서비스 제공시민단체	중앙대민족발전연구원	남북통합교실(1997-1998 운영)	대학부설
	중앙대부설 사회복지관	2001년 탈북자가정의 청소년 대상 사업계획 (중앙대민족발전연구원과 공동사업)	사회복지기관
	가양 7 종합사회복지관	동포에 나누기, 공감대 형성	사회복지기관
	태화종합사회복지관	탈북자대상 재가복지사업	사회복지기관
	성동종합사회복지관	탈북자대상 재가복지사업	사회복지기관
	북한인권시민연합	하나원 방문 자원봉사, 대학생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1:1 가이드 결연	시민단체
	인성개발연구원	결연 및 상담	사설연구소
하나로 교육복지연구원	탈북자상담센터 운영	사설연구소	
종교기관	민족화해위원회	상담, 자매결연, 경조사지원 등 정착지원	천주교
	선한 사람들	생계지원,정착교육(자율모임, 봉사활동생활정착교육, 사회적응향상교육)등	개신교

출처 : 김동배·이기영 (1999, “탈북자 정착을 위한 민간단체지원활동의 방향”, 사회복지여름호, p. 75 ; 이금순(1999), 전제논문, p. 83 ; 탈북 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 내부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위와 같이 여러 민간단체에서도 탈북 주민들을 위한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일부 대학 기관이나 종교 단체 등을 제외하고는 재정 부담과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그리고 운영 인력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아직까지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정부의 지원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민간단체의 지원도 인도주의와 동포애, 그리고 북한 복음화와 같은 종교적 사명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이 탈북자들의 욕구에 비하여 매우 단편적이고 부분적, 일시적이며 지원활동내용에 통일성이 없어 지원사업의 대상이 중복되거나 누락하기도 하고 또 지원단체에 따라 내용이 차이가 있어 탈북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기도 한다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sup>26)</sup>



---

26) 김동배·이기영 (1999), “탈북자 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활동의 방향”, 사회복지 여  
름호, pp. 63-89.

### Ⅲ. 탈북청소년의 남한학교 부적응과 그 원인 분석

이 장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 사회 적응 실태와 그 적응상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탈북 주민의 입국 초기 적응과정과 문제점,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 학교 적응상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살피고, 그 부적응 원인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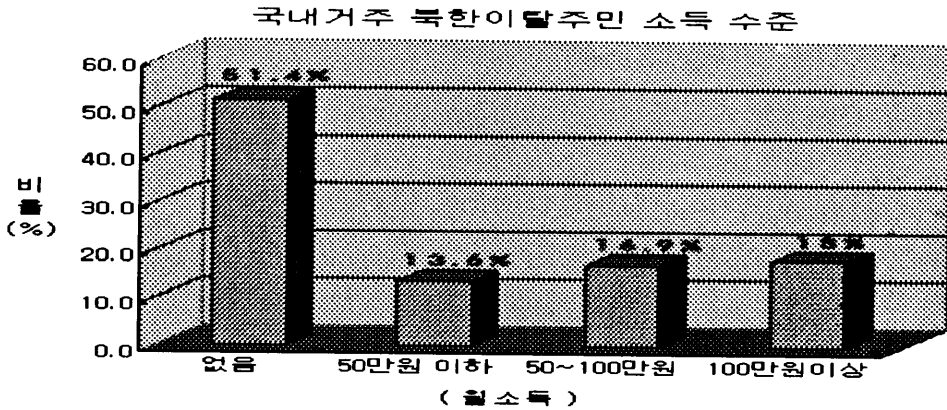
#### 1. 입국 직후의 적응 과정과 문제점

##### 1) 탈북 주민의 자립 능력 미비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서 1999년 국내 거주 탈북 주민 중 659명을 대상으로 <그림 III-1>과 같이 생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월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50만원 이하가 약 65% 선에 이르고 있어 탈북 주민 상당수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이미 취업할 수 있는 연령을 넘겨 우리사회에 들어온 50대 이상의 탈북 주민들은 청장년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나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생활보호를 받아야만 생계가 가능한 탈북 주민 중의 상당 비율이 바로 이 연령대가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령대가 가족과 동반 입국한 경우 대부분 가정의 위치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경제적인 능력이 결여되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적인 문제들도 탈북 청소년의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다.

<그림Ⅲ-1> 국내 거주 탈북 주민 소득 수준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주관 생활실태조사결과 >

탈북자들의 직업현황에 관한 가장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총 924명의 국내거주 탈북자들 중 50.6%가 현재 경제활동인구이며 나머지는 학생, 유아, 고령, 수용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표Ⅲ-1> 국내거주 탈북자의 현재 직업 분포(%) (2000. 4. 30)

직업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회사원	연구원	자영업	무직	소계	학생	유아	고령	수용	소계
인원	153	16	85	214	468	71	16	302	67	456
비율	32.7	3.4	18.2	45.7	100.0	15.6	3.5	66.2	14.7	100

자료: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책지원과. 2000(4). "탈북 주민 정착지원 추진현황."

주: 고령인구는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이상인 자를 가리킨다.

## 2) 적응 과정과 문제점

탈북 주민들은 남한으로 입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경로를 거쳐서 남한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공항에 도착하면 기자회견과 같은 공항행사를 치르고 차량으로 이동하여 '대성공사'라고 하는 국방부 정보사령부에서 운영하는 조사·수



용시설에 도착한다. 과거에는 그곳에서 1개월간의 1단계 신분조사과정을 마치고 5개월 가량의 2단계 정보조사과정을 마쳤다. 그러나 1999년 7월 이후 '하나원'이 완공된 이후 대성공사에서 1개월간의 조사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하나원으로 이전되어 3개월 가량 교육생의 신분으로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되었다. 하나원을 나와서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 담당 경찰에 인계되어 2년 동안의 주거지정착 보호기간을 거치게 된다.

과거에는 2차 조사 기간 중에 탈북자를 대상으로 남한사회 적응교육이 부차적으로 행해졌다. 이때에는 남한의 법과 질서 등에 대해 강의하였고, 몇 차례 시내구경이나 산업체 시찰을 하였기 때문에, 남한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상식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배울 수가 없었다. 이 기간동안 탈북자들은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이 대부분 차단되었고 자신들끼리 또는 수사요원들과의 제한된 교류만을 가질 뿐이었다.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은 이렇듯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지다가 1997년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과거에 비해 보다 체계화되었다. 1999년 7월에 하나원이 완공되면서 사회적응교육은 한층 개선되었다. 그러나 하나원에서의 사회적응교육은 여전히 여러 가지 한계점과 문제점을 갖고 있다.<sup>27)</sup>

첫째, 최근 들어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은 연령, 가족구성, 직업배경 등에서 이질적인데도 불구하고 개인특성과 욕구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이 미비한 실정이다. 매년 입국하는 탈북자의 수가 아직 크지 않다는 점도 교육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다양화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

둘째, 하나원은 40명 가량의 전투경찰이 항시 경비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과의 자유롭고 친밀한 교제와 접촉의 기회가 제한된다. 북한의 집단주의적 생활에 염증을 느껴서 북한을 이탈한 청소년들이 남한에서 다시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응 과정에서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

27) 이상만(2000), 전계서, p. 78.

게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자신들에게 배정된 탈북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2. 탈북 청소년의 남한 학교 적응 실태

북한을 탈출한 후, 국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편·입학한 탈북 학생들 대부분이 학업과 문화적인 수준 차이 등으로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한만길 연구위원은 ‘탈북 주민의 남한 교육 적응연구’란 연구 보고서에서 “1999년 북한을 탈출, 국내 교육기관에 편입학한 탈북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학교교육 적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습능력과 문화적인 차이, 생활비 문제 등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 학생들은 북한에서의 학년보다 1-2년을 낮춰서 국내 학교에 편입학하고 있으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일부 독신 대학생들은 대북 강연 등에 참석하는 바람에 결석이 잦아지고 성적이 떨어져 학교생활에 실패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sup>28)</sup>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 사회에의 적응을 위해 1년('97년 7월 법이 개정되기 전 6개월 정도)동안 교육을 받고 학교에 들어간다. 그러나 1년 동안의 교육기간 중 학교적응을 위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들이 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은 별도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입학 후 학교에서도 적응을 위한 교육은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 탈북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의 제반 영역에 제대로 적응해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청소년의 경우 하루의 일과는 거의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교생활은 바로 청소년의 삶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탈북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실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4개 영역 - 교과목의 차이에 따른 문제, 교수·학습방법의 차이에 따른 문제, 남북한의 교육풍토에 따른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에 따른 문

28) 한만길(1997), 「북한이탈주민의 남한교육적응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 135.

제로 구분하여 그 적응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교과목의 차이에 따른 문제

한국교육개발원의 한만길 연구위원은 ‘탈북 주민의 남한 교육 적응연구’란 연구 보고서에서 탈북 학생들은 문화적 차이로 교과목 중 국어와 국사를 매우 어려워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영어와 한문을 어려워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sup>29)</sup>

남한 학교에 편입학한 탈북 학생의 경우 이과 과목, 예를 들면, 물리나 화학, 생물 등은 남북한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국어, 영어, 한문과 같은 인문사회 과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컴퓨터는 거의 모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목들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다. 수학은 수준이 좀 높고 물리와 생물은 거의 비슷하지만 탈북학생의 수업태도와 학습능력에 따라 어려운 경우가 있다.

반면 암기과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보고 있다. 비교적 배우기 쉬운 과목은 가정이나 윤리 과목을 들고 있다. 반면 인문 사회과학 계통의 과목, 예컨대 국어, 문법, 영어 등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국어과목의 경우 문법도 틀리고 언어도 차이가 나며 고전의 경우는 더욱 어렵다고 한다.<sup>30)</sup>

국사 과목은 북에서도 배우지만 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다. 예컨대 삼국시대, 조선시대에 대해서는 남한의 국사 교과서처럼 다루거나 배우지 않고 김일성과 김정일 관련 내용이 많다. 따라서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들어 본적이 없고 남한의 학교에 다니면서 처음 알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6·25 또한 북침으로 규정되고 있다.

특히 영어의 경우 북한에서는 전체 학생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민학교 4학년 때부터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해 중학교에 들어가면 영어를 배운다.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적을 알기 위해, 또는 미제를 때려잡기 위해 배운다고 한다. 북한에

29) 상계서, p. 132.

30) 「교육개발」(2000), 한국교육개발원, p. 136.

서는 외국어를 잘 하면 대접을 받는다. 그러나 남한에서 배우는 영어와는 수준과 범위에서 큰 차이를 느낀다. 따라서 영어의 경우 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있다. 한 탈북 학생은 처음에 영어시험을 보았을 때 거의 백지답안지를 제출했다고 한다.

또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던 과목 중의 하나로서는 컴퓨터를 들고 있다. 컴퓨터는 전혀 모르고 그런 과목을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대학의 경우에도 이러한 어려움은 공통적인 사항이다. 편입학 초기에 누구나 실생활에서 쓰는 외래어에 어려움을 겪는다. 거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학의 경우 전문용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원서로 수업을 하는 경우는 더욱 어렵다. 물론 동일한 전공을 선택했을 경우, 남한과 북한에서 배우는 내용에서 기술적인 측면 외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60~70년대의 교재를 쓰고 있다. 처음에는 기초를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별로 차이를 못 느끼지만, 새로운 기술공학이론이 등장하면 사정은 틀릴 것이다. 단 교양과목은 쉽다고 말한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교재와 관련된 서적의 선택에서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북한의 대학에서는 모든 과목에서 한 가지 교재를 가지고 원문통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남한의 대학에서는 여러 부류의 참고 서적 등에서 다양한 이론들을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의 대학에서는 교과서가 주어지면 그 책에 집중하여 공부를 하면 되지만, 남한과 같이 다양한 참고 서적이 있는 경우에는 혼란스러워서 어느 책을 보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고 한다.<sup>31)</sup>

반면 초등학교 저학년에 편입학한 탈북 학생의 경우 크게 남북한의 차이를 인식하지 않았으며,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교재도 거의 비슷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와 관련된 과목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편입학한 경우일수록 남한 학교에서의 공부는 어렵지 않다고 한다. 수학 같은 것은 북한에서 배운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 영어도 기초부터 배워서 어렵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다.

---

31) 상계서, p. 134.

## 2) 교수 학습 방법의 차이

### (1) 교사의 불성실한 강의와 소극성

초·중등학교의 경우, 교수 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탈북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점은 교사의 설명이 어렵고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남한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교사들이 학원에서 다 배웠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가르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탈북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교사들은 주로 판서를 많이 해주는 데 비해서 남한의 교사들은 그냥 설명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학생이 알아서 필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수업에서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sup>32)</sup>

### (2) 언어적 이질감으로 겪는 문제

언어적 측면에서는 단일민족의 특성상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의 요소가 강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오랫동안의 분단과 이질적인 체제의 영향으로 언어생활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언어격차 현상과 언어적 이질성이 초래되고 있다.<sup>33)</sup>

한국교육개발원의 한만길 연구위원은 29일 ‘탈북 주민의 남한 교육 적응연구’란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999년 북한을 탈출, 국내 교육기관에 편입학한 탈북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학교교육 적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탈북 학생들은 특히 언어적 이질감으로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화생활의 차이로 학교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가 미술교육 재료로 “켄트(제도용)지를 가져 오라”고 했을 때 켄트지가 무엇인지 잘 몰라 당황했고, 동료학생들의 ‘캡’ ‘짱’ 과 같은 속어의 뜻을 몰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적응 초기에는 실생활에 쓰는 외래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험 때에 사용되는 OMR 카드의 사용은 탈북 학생들에게 아주 생소한 것이 된다. 이는 주관식으로 구성되는 시험문제와 5단계 평정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의 평가방법이 남한과

32) 상계서, p. 91.

33) 한국교육개발원(1995), 남북한 학생과 주민의 통일사회 적응 연구, p. 214.

다르다는 것에 기인한다.

“시험 볼 때 OMR 카드로 옮겨 쓰라고 해서 저는 정말 생소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냥 종이에 문제를 받아쓰고 그것을 제출하면 끝나는데요. 외래어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 미술 준비물을 말할 때 ‘스케치 북’ 이라든지 ‘켄트지’ 같은 것이나 ‘파일’, ‘A4 용지’ 와 같이 외래어를 쓰면 못알아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얘기할 때도 ‘프로젝트’, ‘카리스마’, ‘캠프’ 등 대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내다 보니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김○○, 97년 이주, 중3) 34)

### (3) 강의 진행 방법

대학에 재학중인 탈북 학생이 경험하는 어려움도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강의 진행방법을 예로 들면, 북한의 대학에서 교수들은 남한의 고등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주입식 교육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다. 강의시간은 90분으로 거의 남한의 두 배에 달하고 그 시간에 학생들은 교수들이 불러주는 강의 내용을 토씨 한자도 틀리지 않게 받아써야 하며 중간마다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에서 좋은 점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북 학생들은 북한의 대학교수들이 수업에 적극적임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교육 습관으로 인해 탈북 대학생들이 남한의 대학에서 처음으로 강의를 받으면 그 시간의 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힘들다. 대부분의 남한 대학에서는 모든 것을 교수의 설명에 기초하여 자기자신이 스스로 알아 노트정리를 해야했는데, 이러한 방식에 적응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한 탈북 학생은 편 입학한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방식에 잘 적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대학 교재의 내용 속에는 적지 않은 한자들이 존재하며 또 한글도 한자식 표기방법이 많다. 북한에서는 고등중학교 3학년까지 한자를 배우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거의 한자를 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학교에서도 한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강의를 받는 과정에서 한자로 표기된 것은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불가능했으며 이에 따라 점차 공부에 취미를 잃어 가는 경우도 있다.<sup>35)</sup>

34) 교육개발」(2000), 전개서, p. 95.

35) 상계서, pp. 95-96.

#### (4) 평가 방식의 부적응

탈북 학생들은 또 학교교육에서 '시험'에 대해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1년에 두 번씩 시험을 치르고 있으나 남한에는 시험을 4번 치르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달리 참고서적이 너무 많아 어느 책을 보아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평가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다. 원문통달식으로 학습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데 익숙한 탈북 학생들에게는 남한의 평가방식이 낯설다. 또한 단편적으로 연도나 투쟁시기가 주로 평가내용에 등장하는 북한의 평가를 남한의 평가와 비교해 볼 때 남북한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는 한 해에 두 번 시험이 있으며 학기말과 학년말 시험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탈북 학생들에게는 한해에 네 번이라는 너무 많은 시험 횟수도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시험 때 강의 내용에 근거하여 교수들이 모든 문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해주고 그 가운데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있으며 시험방법은 주관식의 형태를 띤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강의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하되, 출제 예상 문제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그 가운데서 문제가 제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분이라는 짧은 강의시간에 배운 내용이 성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36)</sup>

### 3) 남한 교육풍토에 따른 문제

#### (1) 학벌위주의 사회 풍토

탈북 학생들이 남한 학교에서 가장 인상깊게 느끼는 것은 교실내의 학생들이 매우 자유롭다는 것이다. 남한교육의 수업분위기나 이성 친구관계,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 등은 북한의 경직되고, 엄격한 분위기와는 아주 다르게 보인다.

반면에 경쟁적이고 개인 중심적이며, 학벌위주의 사회 풍토에 대해서는 맹렬히 비판한다.

한 탈북 학생은 남한 학생들 중 보통 30% 정도는 억지로 학교에 다니는 것 같

---

36) 상계서, pp. 96-97.

다고 표현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탈북 학생들은 남한 학생들이 지나치게 공부에 대해 집착하거나, 성적이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 한다. 또한 교육에 집착하는 목적이 이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보다는 개인의 명예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다고 본다. 사회 자체가 학력을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대학 진학이 유행처럼 보인다고 한다. 인간이 되기 위해 대학을 가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고 있다.

탈북 학생을 둔 부모들은 남한 학부모들의 무리한 조기교육, 영재교육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어려서부터 공부에 집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3살부터 영어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오히려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는 북한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고 한다. 물론 어려서부터 김일성, 김정일의 고마움에 대한 충성심 같은 세뇌교육을 중요시하지만, 그래도 자연과 더불어 자연에 빠져 뒹굴고 함께 호흡하며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다.

탈북 주민들은 학벌위주의 사회풍토에서 나타나는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남한 학교교육이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실종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사회적 명성과 경제적 풍요, 인기 있고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탈북 주민들은 남한의 교육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도 하루빨리 성분중심의 지도자를 키워내기보다는 확실한 인재를 키워줌으로써 국가의 경제력 발전과 교육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민주화된 사회제도를 높이 평가한다. 특히 남한에서는 개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며 아울러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sup>37)</sup>

---

37) 상계서, pp. 97-98.



## (2) 남한 대중문화에 대한 거부감

탈북 청소년들은 다양하고 개방적인 사회에서 상호간에 이해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비교적 서구의 자본주의 문화가 유입되지 않았으며, 문화예술 또한 주민들에 대한 선전 선동의 차원에서 부정적인 것을 전적으로 배제하거나 여과하여 좋은 것만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에서 살아온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의 성문제, 대중음악, 영화 등과 같은 대중 문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것이 지나치면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이 혐오감으로 변할 수도 있다.

특히 가부장적 관습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사회에서 생활해온 탈북 청소년들에게 있어 남한 학생들의 이성관계나 여학생들의 문화는 아주 충격적이다.<sup>38)</sup>

…… 사랑을 너무 쉽게 하고 너무 쉽게 버립니다. 그 어떤 한 번의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율이 북한보다 몇배로 많아요. 그리고 남녀교제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란한 성문화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는 미혼녀 등 사회질서가 혼잡하고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야기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96년 이주, 대학교 1학년) <sup>39)</sup>

그들은 공부를 해야하는 중등학생들이 술집이나 나이트 출입을 학교교문을 드나드는 것보다 더 자주 들락거리고, 책이 있어야 할 가방 속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화장품이며 하이힐 등이 들어 있는 일부의 청소년의 모습을 보고 학교에 와서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한다. 너나 할 것 없이 담배를 피우고 모이면 술을 마시는 행위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한다.

반면 획일적이고 통제된 문화에 길들여져 있다가 다양하고 자율적인 문화 풍토에서 살게 되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에 노출되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다. 즉 퇴폐적이거나 향락적인 문화에 대한 집중적 노출은 학습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교공부에서의 의욕상실과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경향이 그것이다. 특히 중등학교에 편입학한 탈북 학생의 경우 학습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38) 상계서, pp. 98-99.

39) 상계서, pp. 98-99.

학교공부에 흥미를 잃고, 같은 부류의 학생들이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경우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다.<sup>40)</sup>

### (3) 교사의 처벌

탈북 주민들은 얼마 전 남한 학교에서 일어난 학생의 체벌교사 고발 문제에 대해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거나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특히 탈북 학생을 둔 학부모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북한에서의 교사 중심의 엄격한 교육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교사를 존경하고 있다. 아울러 교사의 처벌이 심한 경우에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학부모들의 아량이 있음을 강조한다.

탈북 학생의 학부모들은 나라의 미래를 가꾸어 가는 교육자들을 존경해야 하며,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sup>41)</sup>

## 4) 교우관계와 교사와의 갈등에 따른 문제

### (1) 탈북 청소년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친구들과 어울리는데는 나이 차이가 중요한 변수이다.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나이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생의 경우 나이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향유하는 문화의 차이가 탈북 청소년들에게는 대단히 생소한 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나이가 많을수록 적응의 문제는 더욱 크다.

남한 학생들은 탈북 학생을 처음에 호기심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들의 언행에 대해 호기심이 많다. 그러나 이것이 탈북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한다. 또한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북한 말을 흉내내기도 하면서 놀리기도 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탈북 학생들은 처음에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을 보인다. 강한 억양 때문에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두게 되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언어의 이질감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도 있었고, 또 북한에

40) 상계서, pp. 98-99.

41) 상계서, pp. 98-99.

서만 사용하는 단어를 듣고 사람들이 웃는 경우도 있다. 물론 사람들이 비웃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마도 그들은 안타까운 당사자의 심정을 모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편입학 초기 1년 동안에는 다른 아이들이 북한에서 왔다고 많이 얽잡아 불려고 해서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약 1-2년이 지나서야 기분 나쁜 질문이나 놀림이 없어진다고 한다.<sup>42)</sup>

## (2) 교우관계 형성의 어려움

의리와 온정을 중시하고 자기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조직화되어 움직이는 사회에서 몇 십년 동안 살아온 탈북 청소년들에게 있어 자유롭고 이해관계에 치밀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우관계를 새롭게 잘 형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교수님들과의 관계,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동네에서 이웃과의 관계,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조직적인 사회에서 자유주의 사회로 이동한 우리들에게 가장 힘든 문제예요. 자유주의적이고 이해관계에 치밀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새롭게 잘 가지는 것이 학문을 연구하거나 기술을 체득하는 것 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은 겹겹이 둘러싸인 자본주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으로 남고 그러다 보니 남한 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것은 인간 관계의 회복인 것 같아요.” (이○○, 97년 이주, 대학생) <sup>43)</sup>

탈북 학생들은 남한 학생들이 이해타산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고 한다.

## (3) 탈북 청소년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

남한 학교에 편입한 초기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탈북 학생을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교사의 반응은 탈북 학생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유독 탈북 학생의 잘못을 더 크게 보고 있다고 탈

42) 상계서, p. 100.

43) 상계서, p. 101.

북 학생들은 느끼고 있다. 탈북 학생들은 교사들이 자신들을 그냥 보통 애들과 같이 ‘평범한 애’로 봐주기를 바라고 있다. 항상 ‘북한 애’로서만 취급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낀다.

남한의 대부분의 교사들은 북한에서 온 학생들에게 잘 해주려는 경향이 보편적이다. 특히 1년 동안 담임을 하게 되는 교사의 배려와 관심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탈북 학생의 입장에서는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눈에 보이게 차별해서 잘 해주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sup>44)</sup>

“북한에서 힘들게 온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지만 항상 북한애로 취급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처음에는 딴 학교로 전학가고 싶었습니다. 전학가서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김○○, 97년 이주, 중3) <sup>45)</sup>

반면 대학의 경우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배려보다는 무관심으로 그리고 아예 학업에서 배제시키려 했던 경험을 한 학생도 있었다. 다른 학생들에게는 발표할 과제를 다 돌려가며 주면서도 탈북 학생에게는 발표과제도 주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그만 두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상의 면담조사와 체험수기를 통해 본 남한 교육 적응 실태를 요약하면, 교과목에 대해서는 인문 사회과학 계통의 과목, 예컨대 국어, 국사, 문법, 영어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또한 교수학습 방법에서 남북한의 차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한 교육풍토에 대한 인식에서 탈북 학생들은 교실과 수업분위기의 자유로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개인주의적 내지 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입시위주의 경쟁적 분위기에 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남한의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탈북자들은 괴이하고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남한 학생들의 탈북 학생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막연한 호기심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탈북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 형성의 측면에서도 탈북 학생들은 북한의 이해타

44) 상계서, pp. 100-101.

45) 상계서, pp. 101.

산없는 순수하고 의리에 기초한 교우관계를 높게 평가한다.

앞에서 제시한 탈북자들의 구체적인 적응상의 문제나 애로점, 느낀점들은 모두 교육상황에 대한 남북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현주 연구원이 41명의 탈북학생들을 대상으로 탈북 학생들이 남한의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남한이 북한과 얼마나 다르다고 느끼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여러 측면에 있어서 북한과 남한은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up>46)</sup>

이 중 특히 ‘차이가 많이 난다’에 40%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인 문항을 살펴보면 ‘선생님이 학생을 대하는 태도’, ‘학생이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 ‘시험부담’, ‘시험방식과 이에 대비한 공부’, ‘아이들이 노는 방식’, ‘아이들의 성격 특성’,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정도’, ‘학급회장의 역할’, ‘이성 교제’ 등이다. 이들 항목들은 동시에 ‘약간 차이가 있다’에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 이들 항목들은 전반적으로 남한과 북한간에 차이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아이들이 노는 방식’ (60.9%)과 ‘아이들의 성격 특성’ (61.0%),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정도’ (65.9%), 그리고 ‘이성 교제’ (58.5%)는 남한과 북한이 매우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으로 나타났고, ‘약간 차이가 있다’에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항목은 ‘친구들간에 서로 자세히 아는 정도’ (51.2%), ‘선생님께 혼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61.0%), ‘선생님이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는 정도’ (43.9%)이다.

한편 ‘차이가 없다’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대하는 선생님의 태도’ (36.6%), ‘시험부담’ (24.4%), ‘공부시간에 학생이 선생님께 질문하는 정도’ (22.0%)이다.

이렇게 탈북 학생들은 학교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남한과 북한이 매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 인식은 남한에서의 학교생활 초반에 당혹스러움과 부적응을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탈북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관련 기관의 조사기간 동안이나 편·입학 이전의 공백기 동안 남

46) 상계서, p. 101.

한의 학교생활을 위한 여러 측면의 사전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동시에 학교 입학 후의 여러 가지 측면의 배려와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 3. 남한 학교 부적응의 원인 분석

#### 1) 교육의 이질성에서 오는 부적응

남북한의 교육은 교육의 이념에서부터 교육체제,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 제 부문에 걸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조기교육의 원리를 수용하여 취학 전 교육을 강화, 보편화시켜 왔고 일하면서 배우는 사회주의 교육방침에 따라 성인교육체계를 중시하고 있다. 교육이념과 목표에 있어서 남한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두고 전인교육, 민주주의, 세계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개인 차원의 인격 완성을 도모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헌법 제4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적 인간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남한은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목적을 우선하고 있는데 대해,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정치를 우선하여 교육의 계급성을 강조하고 수단화하려는 특성이 강하다.<sup>47)</sup>

남북한 학교교육에 있어서 각 영역별 이질성을 분석한 연구<sup>48)</sup>에 따르면 첫째, 교육 이념 및 목표 영역에서 남한은 개인적 자유를 전제로 한 집단주의 정신의 함양을 목표로 삼고 있다. 둘째, 교육제도 및 행정 영역에서 남한의 경우 정규 과정인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반면, 북한은 학교교육과 더불어 취학전 교육과 사회교육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셋째, 교육과정 및 내용상 남한은 보편적인 지식과 기초원리를 중시하는 주지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반해 북한의 경우는 보편적 지식보다 김일성 주체사상이나 사회주의 혁명 이데올로기적 가치관에 연관된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는 주정주의적 성격을 지닌다. 넷째, 교육방법 및 평가에 있어서 남한의 교수학습이론은 사랑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여 서구 이론을 중심으로 이론적 수준에 치중하고 있다. 북한은 토속이론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천

47) 최영표외 (1993),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Ⅱ)』, 한국교육개발원, p. 124.

48) 김동규(1990), 「북한의 교육학」, 문맥사, p. 95.

의 결합원리'에 의하여 이론의 실천적 학습형태를 강조하고 있다.

남북한의 교육이념과 체제의 이질성을 비교 분석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sup>49)50)</sup> 북한의 교육은 남한의 교육과는 근본적으로 이념 및 목적에서부터 각급 학교의

교육체제와 내용, 방법에 이르기까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교육이념에 있어 북한은 철저한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남한의 경우는 '전인의 형성과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즉 북한의 교육이념은 혁명화와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의 3대 방향을 통한 '공산주의적 새 인간'의 육성에 있는 반면 남한의 교육이념은 개인의 개성과 소질계발을 통한 전인성의 함양과 건전한 민주시민의 양성에 있다.<표 III-1><sup>51)</sup>

교육목표에 있어서도 북한의 교육은 모든 학교 급별이나 교과목에 공히 '공산주의적 새 인간' 육성을 위한 구체적 공산주의 덕목과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목표, 김일성 주체교육론이 주류를 이루는 정치 사상적 교육목표가 중점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 남한의 교육목표는 지·덕·체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목표가 각급 학교가 교과별로 고루 제시되고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정책과 교육제도, 교육기관에 있어서도 남북한은 다음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49) 강무섭외(1991),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대책」, 교육정책자문회의자료, p. 48.

50) 김태완(1995), 「남북이질성 교육을 위한 통일교육」,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제33권 제2호, 1995, p. 191.

51) 강무섭외(1991), 전계서, p. 62.

<표 Ⅲ-2> 남·북한의 교육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교육이념	· 개인의 개성과 소질을 바탕으로 잠재력, 창의력 개발 · 건전한 민주 시민 양성	·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공산주의적 새 인간 육성 ·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건실한 혁명가 양성
교육정책방향	국민의 교육적 요구를 바탕으로 정책 구안	노동당에 의한 주민통제 수단으로서의 정책 구안과 집행
학교제도	6-3-3-4제	4-6-4제
의무교육	9년 (일부 6년) 학령전 교육은 사교육 의존	11년(유치원 1년 포함) 영아때부터 집단교육 실시
대학입학제도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자율 선택	당에 의한 선발제도
교원양성	중등교사를 사범대학 및 대학에서 양성	고등중학교의 고등반과 중등반을 각각 다른 기관에서 양성
성인교육기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	공장대학, 어장대학 등 기업소에 부설되어 기술 및 직업교육 실시
영재교육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실시	혁명유자녀 등 특수층 자녀 대상으로 실시

## 2) 청소년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의 미비

### (1) 탈북 성인 중심의 '하나원' 교육내용

현재 하나원의 정규 교육 내용은 크게 탈북 주민의 심리적 불안정 상태의 해소, 문화적 이질감 해소, 진로 지도 및 기초직업 훈련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3개월간 총 520시간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내용 속에는 연소자 탈북자, 즉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적응교육 프로그램이 미비된 실정이다. 하나원 교육생에 대한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의 미비와 제한성은 이미 하나원 교육프램의 평가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초기의 청소년 대상교육이 전무한 상태에서 현재는 어느 정도 발전하면서 청소년들을 위해 성인과는 분리된 교육시간이 배정되고 있지만 아직도 성인들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습 시간 이외의 사회적응 교육은 성인들과 함께 아니면 그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현재 학습 프로그램은 민간자원 활용 차원에서 2명의 교사가 맡아서 영어, 수학, 역사 등을



가르치고 있다.

학령기로 중학생 정도의 나이 이하의 청소년들은 하나원 인근의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학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고등학생이나 그 이상의 연령에 있는 탈북자 청소년들은 인근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배치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들의 학습 능력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 제한점이 아니더라도 실제 학교측에서 이들의 입학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자 청소년 중에서 다행히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1학년에서 3년 정도의 학업을 마치고 온 경우라 하더라도 남한의 학생 수준을 따라가기가 힘들다. 하물며, 북한에서 인민학교만 졸업하고 온 경우나 그후 중국 등지를 3-4년 체류하면서 제도 교육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경우는 남한 입국 후에도 진학에 큰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또한 남한 청소년들의 인터넷을 활용한 지식의 확장과 축적은 북한 출신의 청소년들에게 비교가 안될 정도이다.

하나원 내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서 이러한 것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상설화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을 위한 적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기수별로 몇 명의 청소년이 입소할지 가늠하기 힘들어 이렇게 기수별로 불규칙한 청소년 탈북자의 수는 정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다.<sup>52)</sup>

## (2) 하나원 교육담당 실무자들과의 면접 조사를 통한 내용

2000년 9월 2명의 교육담당 직원과의 면접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파악되었다.<sup>53)</sup>

① 탈북 청소년들의 학업교육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탈북 청소년들에 학업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다. 이 부분의 투입되는 노력과 자원을 다른 부분의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투자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레크레이션, 레저활동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청소년 전담직원의 필요성: 하나원 탈북자 연소자(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52) 이상만(2000), 전계서, p. 23.

53) 이기영(2000), 「하나원에서의 탈북 청소년 교육생 사회적응력 세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pp. 24-26.

전담직원이 필요하다. 이 전담직원의 신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되어야지 계약직은 활동의 책임성을 보장할 수 없다. 그리고 전공 또한 사회복지 등을 전공한 청소년 분야의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③ 중·고등학교 취학 연령의 청소년의 적응 어려움: 하나원에 있는 동안 청소년 몇 명을 입학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학교 측에서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만큼 중학교나 고등학교 취학연령에 있는 청소년들의 학업적응과 사회적응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④ 청소년들의 적응교육에 인식과 동기, 욕구가 매우 낮음; 이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설계가 구체적이지 못하며, 또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닮아 “그냥 빨리 내보내 주는 것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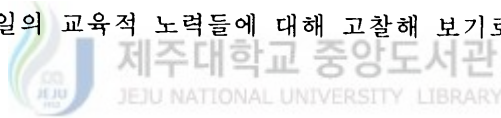
청소년 교육생들도 분별력이 없는 가운데 뭘 필요로 하는가 물으면 “운전을 가르쳐달라, 다른 것은 필요없다” 이런 식으로 응답한다. 공부하는 것도 흥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에 응답하기를 “너희들 운전교습 시켜주는 것 잘해봤자 60만원밖에 안된다. 사회 나가서 과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느냐? 라고 반문할 정도로 탈북 청소년의 남한사회 인식이 낮다.

⑤ 탈북 청소년의 연령 격차에 따른 욕구의 대응: 탈북 청소년들 사이에서 연령차가 큰 것도 하나의 문제이다. 이 보고서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청소년 연령의 일반적인 적용이 탈북자들에게는 타당성이 떨어지고 대체로 청소년 연령대가 이들에게는 확장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된 청소년 연령대에서 이들의 욕구나 태도가 다양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렵고 하나원에서 전반적으로 통제의 방법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⑥ 하나원내 성인교육생들의 행태와 문화에 대한 답습: 어른들이 규정을 어기며 술을 먹는 것이라든지 강의를 빠지는 것이 너무 재미있다고 한다. 이러한 성인들의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도 이러한 행태를 배우며 비슷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 IV. 통일독일의 구동독 청소년의 재사회화 사례 분석

독일의 통일 전후 과정에서 발생한 청소년 문제들은 우리 나라가 통일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교육문제, 폭력문제, 실업문제 등이 발생하는 원인 분석과 이 문제들을 풀어 가는 독일 정부의 정책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까이는 탈북 청소년들의 문제를 푸는 방안 모색에도 좋은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구동독 청소년들이 통일독일 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도출되었던 문제들이 무엇이고, 이것의 극복을 위한 통일독일의 교육적 노력들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 1. 구동독 청소년의 통일사회 부적응 양상

통일 초기 체제 전환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구 동독 학생들의 부적응 표출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54)</sup>

첫째,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능하면 신속히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직장생활에서 성공하고 높은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그들이 그렇다고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적응 과정에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고, 따라서 완전한 사회화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적응과정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이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할 때,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좌절에 빠지고 만다.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좌절에 빠지

54) 한국청소년개발원(1994), 「독일통일과 청소년(남북한 청소년의 동질성 회복 방안에 관한 연구Ⅲ)」, p. 57.

면서 청소년들은 점차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갖게 되었다.

셋째, 구 동독 청소년들의 좌절은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적응과 주의를 끌려는 청소년들의 도전으로 인한 폭력성은 구 동독의 청소년들이 구 서독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청소년 폭력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나찌 시대에 대한 비판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둘째 구 동독에서는 민주적인 정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셋째 가치 혼란의 시대에서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통독 사회에서의 양독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부적응 양상은 논의의 차원에 따라 상이하게 접근 가능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청소년들의 교육적응 측면, 청소년 폭력 측면, 직업적응측면 등 세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 1) 교육적 적응 측면



### (1) 학제의 변경에 따른 혼란

독일 통일은 교육의 목적과 내용, 교육을 하는 교사,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가치관과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구 동독 지역의 학교와 교육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 교사와 학생들에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였고, 부적응 문제를 야기시켰다.

구 동독은 통일된 단선형 교육제도를 갖고 있었던 반면 구 서독은 복선형 교육제도를 갖고 있었다. 통일된 단선형 교육제도에서 서독식의 다양하고 분화된 복선형 교육제도로의 전환은 대부분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는 낯선 것이었고,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고 그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학생들도 무척 혼란스러워 하였다.<sup>5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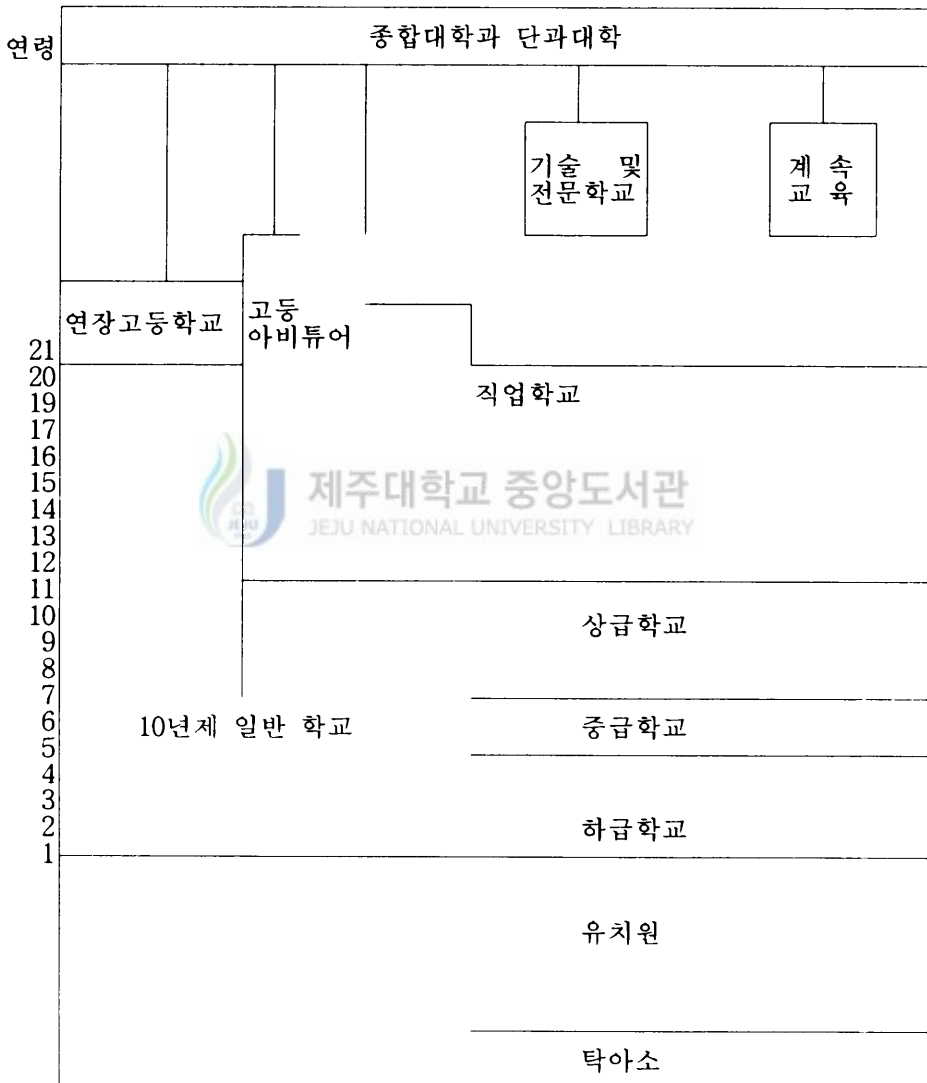
사회주의주의였던 동독의 학제는 10년 의무교육을 중심으로 삼는 단선제<sup>56)</sup>였으나, 동독의 교육제도는 서독식 복선제로 바뀌었다.

55) 상게서, p. 103.

56) 서정화(1987), 주요 국가의 교육행정 제도, 한국교육개발원, p. 179.

① 동독의 학교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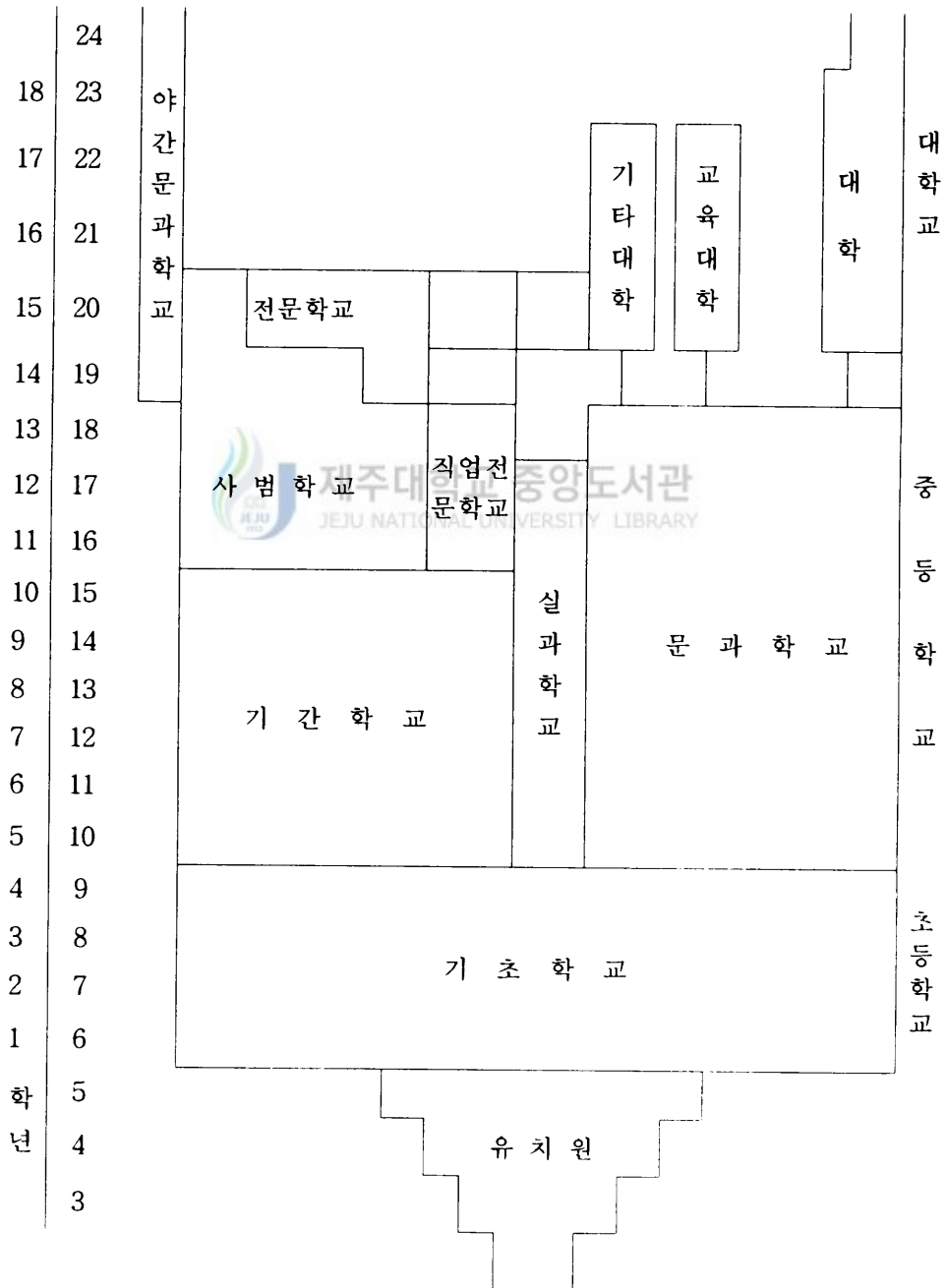
<그림 N-1> 동독의 학교 제도



학제의 복선제로의 전환은 중등 과정이 4가지로 다양화되어 학부모들의 자녀 진로 선택에 혼란을 부가하였다. 새로운 학교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학생들의 어려움은 물론,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까지 복선제에 익숙해지려고 고생하게 되

### ③ 바이에른주의 학교 제도

<그림 N-3> 바이에른주의 학교 제도



이처럼 서독의 학교제도는 복선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으로 진학시키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일찍 직업 전선으로 나갈 사람을 위한 직업교육과정이다.

초등교육과정은 4년제 기초학교(9개주)와 6년제 기초학교(2개주)이며, 중등교육과정은 실과학교(Realschule:6년제), 문과학교(Gymnasium: 9년제), 기간학교(Hauptschule:6년제)이다. 기초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만 3세 이상의 아이들이 가는 유아원이 있는데, 의무교육이 아니며 지역사회의 복지단체나 교회 등이 운영한다. 서독의 학교는 매년 8월 1일에 시작하는데, 그 해 6월 30일까지 만 6세가 되는 모든 어린이는 학교에 다닐 의무를 가진다. 의무교육기간은 교육법상 6세부터 18세까지의 12년이지만, 이것은 졸업 후에 받는 직업교육까지 포함되는 기간이므로 실제로 학교에서 교육받는 기간은 9-10년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기초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생활을 시작한다. 기초학교를 마치면 기간학교, 실과학교, 문과학교 중 하나에 진학하게 되는데, 어떤 형태의 학교로 진학하는가는 부모와 자녀가 의논한 후 교사의 조언을 참고로 결정한다.<sup>61)62)</sup>

## (2) 교육과정의 변화에서 오는 혼란

### ① 교육내용의 변화에서 오는 혼란

과거 동독 지역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토대를 둔 내용이었지만, 통합 독일의 교육과정은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어서 학생들이 이해하고 따라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자유시장 경제 기능에 대한 이해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등 자본주의의 모순보다는 좋은 점들을 배워야 하는 학생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외에 직업기술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서독 지역의 산업이나 과학기술 수준이 동독 지역보다 훨씬 앞섰기 때문에 동독 지역의 학생 수준에게는 어렵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sup>63)</sup>

61) 최희선(1991), 선진국의 교육관리 및 교육과정 편제 운영체제, 성원사, p. 256.

62) 곽상만·김영준(1987), 교육과정 국제비교, 한국교육개발원, p. 251-252.

63) 한국청소년개발원(1994), 전계서, p. 258.

구 동독의 정치이념 과목인 ‘국가 시민’ 교과가 폐지되고, 대신 ‘사회’ 또는 ‘정치교육’ 과목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외국어 과목이 대폭 보완되었다. 제 1외국어가 러시아어에서 영어로 바뀌었고, 프랑스어 등 현대어와 라틴어 등 고대어도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었다. 더불어 종교와 윤리과목이 정식과목으로 채택되었다.

기존 교과목의 내용이 점차적으로 서독식의 교육내용으로 바뀌고 새로운 교과목이 생기면서 학생들은 이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새로운 교과목을 배워야 하는 것과 더불어 동일한 교과목에서도 구 동독 때보다 배워야 할 교육내용이 많은 것이 큰 어려움이었다.

더불어 폐쇄사회에서 고립된 지식을 갖고 있었던 동독 학생들에게는 자유시장경제 원리, 개방적인 민주사회, 다원화된 사회 원리를 익히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았다.

교육은 사람을 사회화시켜서 그 사회에서 생활하기에 적합하게 만드는 일이므로, 동독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체제를 가르치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크게 변화하였다. 따라서 교과서를 모두 새로 만들게 되었는데, 동독의 학교교재 출판사가 하나 있었는데 서독 출판사에 병합되었다. 통일된지 1년이 지난 1991년 9월까지도 교과서 공급량이 부족해서 심한 경우에는 한 학급에서 3권의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해야 하는 실정이었다고 한다.<sup>64)</sup>

교육과정과 내용이 바뀌면서 서독학교를 기준으로 동독 학생들을 평가하게 되어서, 동독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낮다고 상급학교나 대학에 진학하는데 어려움이 생겼다. 독일연방정부는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진학하는 의과대학 등에 동독 학생들이 진학하는 것을 제한하였다.<sup>65)</sup>

## ② 교육방법의 변화에서 오는 혼란

교육내용 뿐 아니라,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구 동독의 교육방법은 사회주의적 가치관 주입교육이 강조되었으며, 교육방법도 획일적이어서 학생들의 개성이 상실되고 독창성과 창의성이 무시되었다. 구 동독의 학교는 철저히 ‘학습학교’로서 교사가 전달한 지식을 학생들은 단지 복습하는 것에 열중하였다. 교사중심-강의중심의 권위주의적 수업 아래서 학생들은 복종심을 함양하고,

64) 상계서, p. 260.

65) 상계서, p. 268.



엄격히 훈육되었다. 교사 역시 주어진 틀에서 가르치고 생활하여, 독자적인 수업계획안을 만들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자기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진실성이 결여되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게 되었다. 때문에 통일 직후 서독 식의 자율적-학생 중심적 수업에 이질감을 느끼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은 점차 새로운 학교 문화와 교육방법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새로운 교육 방식이 교사중심의 통제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이 존중되는 교육임을 점차적으로 깨우치게 되었다.<sup>66)</sup>

### (3) 가치관의 혼란

통일 전 동·서독인들은 서로 다른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서로 다른 가치관과 희망을 갖고 있었다. 동독 학생들이 사회주의적이고 집단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서독 학생들은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고와 의식의 이질성은 동·서독인들의 내적 통합을 가로막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서로 다른 체제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낳았다.

특히 구 동독 학생들은 통일 후 가치관의 혼란이라는 어려움을 겪었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옳다고 확신하였던 가치들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성스럽고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가르쳐졌던 이념들이 왜 하루아침에 무가치한 것으로 변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왜 이전의 적이 동지가 되고 동지가 적이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존속하였던 체제가 영구히 실패한 실험으로 끝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sup>67)</sup>

### (4) 구 동독 교원의 해고와 재교육

통일 전 구 동독에서는 구 서독에 비해 과잉된 교원인력을 양성 보유해 왔다. 인구 1만 명당 교원 수(87년도)를 보면, 동독이 100명인데 반해 서독은 73명이었다. 학생 1천명 당 교원 수(88년도)에 있어서도, 동독이 84.1명인데 반해 서독은

66) 상계서, p. 70.

67) 상계서, p. 82.

66.6명이었다. 학급당 학생 수에 있어서도 구 동독 시기에는 최고 20명 내외였다.

통일 이후 공직 부문 전반에 걸쳐 기구 축소, 감원이 이루어졌다. 그와 함께 교원의 해고 문제도 중요 이슈로 떠올랐다. 구 동독 출신 교원들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교원을 그대로 임용한 후, 통일 조약에 따라 자격 심사를 실시하였다. 자격심사의 내용은 교사의 전문능력, 교사로서의 적성, 특별히 ‘슈타지’ (국가안전부)에 대한 협력 여부가 주요 고려 요건이었다. 통일 조약에 근거해 과거 당적 보유 여부는 중시하지 않았다. 구 동독 체제하에서의 교장과 교감 등 관리직 재임자는 대부분 교체되었다. 더불어 자유독일청년연맹(FDJ) 지도교사 등 무자격교사도 해고되었다.

이념성 외에도 과거 구 동독에서는 과다한 교사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잉여 교사의 해고는 필연적이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도 서독 수준인 20-30명 수준으로 조정됨으로써 잉여 교사는 더욱 많아졌다. 이에 따라 많은 교사들이 해고되었다. 대부분의 교사 해고는 1991년에서 1993년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브란덴부르크 주를 제외하고는 약 20%의 교사들이 해고되었다.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는 교사의 봉급과 수당을 줄여 고용을 유지했다.

그러나 교원재임용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교사수가 과잉상태에 있었으나 외국어나 음악, 미술 등 일부 교과목에서는 교사가 부족하였다. 이로 인해 교사가 부족한 과목의 경우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교사가 재임용되고, 수요가 감소한 과목의 경우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교사들이 해고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재임용된 교사들도 서독 교사에 비해 신분상, 급여상 불평등 대우를 감수해야 했다. 이 모든 점들이 구 동독 지역 교사들의 불안과 불만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해고되지 않고 학교에 남게 된 교사들은 재교육과 더불어 3년간의 시보교사로 임용되었다. 시보기간에는 한 단계 낮은 봉급이 지급되었다. 시보기간이 끝나면 수업관찰, 교과지식 및 교수법에 대한 면접 등을 통해 심사·평가하여 정식 교사로 임용하였다.

독일 통일이 흡수통일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 직후 구 동독 지역 교사들은 위와 같은 교원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내부적으로 교육통합과정에 대단히 큰 불만을 갖고 있었다. 통일이 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이러한 교육통합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동독 지역의 교사들은 교육통합과정에서 동독 교육제도의 좋은 점은 취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서독의 교육제도를 동독 지역에 이식하려고만 했지 동독의 좋은 점을 취사선택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독의 우수한 자연과학 그리고 직업교육과 대학입학의 연계 제도 등은 서독에서 수용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통일이 너무 신속히 진행되어 차근차근 공통점을 찾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점 역시 동독 지역 교사들은 매우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 통일 이후 서독 교육관계 인사들이 정복자 의식을 갖고 있었던 점이 동독인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또한 통일 후 동독 교사 처리 과정에서 교장, 교감, 교육청 인사 등 대부분의 간부급 교사는 해고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능력 있고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처리했어야 함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동독 지역 교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있는 점은 그들이 현재 서독 지역 교사의 86%의 보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동독 지역 교사 역시 자신들을 ‘열등 교사(Lehrer Zweiter Klassen)’로 인식하고 있다.<sup>68)</sup>

## 2) 청소년 폭력 측면

독일 통일은 청소년들의 폭력 행위를 증가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물론, 청소년 폭력 문제는 통일 이전에도 있었지만 통일이란 대변화 속에서 증가되어 심각해진 것이다. 동독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주의 말기의 위기 상황과 몰락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가치 체계와 행위 방식에 혼란을 가져왔다. 동독이 서독에 편입된 이후 그들의 삶은 인생 준비, 진로 계획 등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상황과 직면하게 되었고,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에 대한 반항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즉, 급변하는 정치 경제적 체제 변화

---

68) 상계서, p. 71

속에서 자아를 확립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폭력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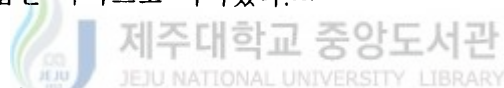
특히,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일부 동독 청소년들이 새로운 제도에 쉽게 적응하지 못함은 비행과 일탈의 주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동독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적 적응은 그들의 폭력행위 방지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 이후 동독 경제의 대 혼란과 이에 따른 청소년 대량 실업도 청소년 비행과 폭력행위의 증가에 한 몫을 하였다. 통일 과정상에서 피할 수 없는 과도기에 학교는 졸업했으나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소년들이 비행과 폭력에 빠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통일의 폭력행위의 증가는 동독 사회의 경제적, 교육적, 사회적 불안정을 반증해 주는 현상이다.

독일 청소년들의 폭력 행위 증가는 단지 동독 지역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서독 지역의 청소년들도 통일 전보다 폭력행위에 더욱 빈번하게 가담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빈부 격차, 사회적 통합의 결핍, 지나친 이기주의화 등 사회 전반의 모순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 전반이 모순에 빠진 상황에서는 부의 축적, 모험, 권력, 사회적 인정 등의 개인적 삶의 목표 달성을 위해 폭력을 쉽게 동원하기 마련이다. 서독 지역 청소년들의 폭력 사용 증가에는 상업화된 대중매체의 영향도 크다. 대중 매체를 통하여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는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의 폭력 사용은 청소년들의 사회 인식 시각을 왜곡시키고, 폭력을 쉽게 수용하게끔 의식화시키게 된다. 특히, 대중매체 영웅들의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모방심이 강한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학습 효과를 낳고 있다.

동독 지역에서의 청소년 폭력은 이와 같이 동독과 서독지역에서의 독일 청소년들에 의한 폭력도 문제지만, 외국인 청소년들(비 독일인 청소년)의 폭력행위 증가와 심각성이 더욱 큰 사회적 문제이다. 물론, 통일 전에도 외국인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동이 자주 사회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는 외국인 청소년들이 대부분 하위 계층으로서 그들의 취업 전망도 어둡고, 사회적으로 참여와 인정을 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독일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노동 이민 과정에서 임금이 싸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하였고, 이렇게 독일 사회에

정착한 이민자들은 독일 사회의 하위 계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독일 사회에서 하위 계층에 머물 수밖에 없는 요인은 우선 독일 말을 잘하지 못함 뿐 아니라 가정 생활 양식이 독일의 전통적 가정교육 제도와 달라 자녀 교육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며, 외국인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주거 제한, 취업 제한 등의 심리적 불안감, 그리고 취업 과정 및 사회 생활 과정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무시와 증오심 등의 차별 대우이다. 이러한 불리한 요소들이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어 그들 나름대로 집단을 형성하게 만들고 이러한 집단들이 폭력이나 절도 등 반사회적 행동들을 자행하게 된다. 외국인 청소년들이 겪던 상황은 동서독간에 국경이 없어지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노동 이민자들은 일자리와 주택 시장에서 동독 지역에서 넘어온 동독 청소년들과 경쟁하는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여론의 우선 순위에서 옛 동독 지역 청소년들에게 밀린 외국인 청소년들은 삶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느끼게 되어, 1989년 이후에는 집단 폭력으로 이어졌다.<sup>69)</sup>



### 3) 직업 적응 측면

통일로 동서독 전체 지역에 자본주의 경제 논리가 적용됨에 따라 동독 지역의 제반 산업은 서독 지역의 산업에 밀려 경제 상황이 통일 전보다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동독 지역의 주민과 청소년들은 변화된 경제 구조에 적응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급격한 경제 체제에 변화와 동독 지역의 경제 상황 악화는 청소년 실업률을 증대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청소년 실업률의 증대는 앞서 논의된 것처럼 곧 청소년 비행과 폭력행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통일 이후 2년 동안에 동독의 취업인구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펴보면 동독 지역에서의 실업 문제 즉, 직업 적응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가늠할 수 있다. 1992년 2/4분기 총 취업인구가 620만인데, 이는 1990년 1/4분기보다 336만 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별 차이가 없으나 농림 수산업이 67만, 공업이 214만 명의 일꾼을 잃었다. 그리고 통일 후 동독 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69) 한국청소년개발원(1994), 전계서, p. 125.

이주한 사람이 2년 사이에 약 52만 명이나 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경험과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이다. 그 밖에 집은 동독에 있으면서도 서독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아서 1992년 2/4분기에는 78만 명이나 되었다. 또한 동독 출신의 청소년들이 취업하려고 해도 그들이 구동독 정권 하에서 학교나 직업훈련 기관을 통하여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이 서독의 산업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통일 후 동독지역의 실업자는 통일 당시 6.1%에서 1992년 초 17%로 급증하였다. 물론, 그 이후 동독 정부의 다양한 실업률 감소 대책으로 동독 지역의 실업률이 통일 초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10%를 상회하는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기의 실업 상태는 단순한 경제적 불안정 이외에 자아 정체성 상실 및 사회적 역할 상실 등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통일 이후에 동독 지역에서 청소년 실업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실업과는 다른 과도기적 실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더욱 심리적인 부담 내지는 부적응을 주게 되었다. 즉, 계획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통제되는 노동시장에서 개방된 노동시장으로, 정부의 후견 하에 있는 직업 진로에서 개인의 능력과 우월성을 바탕으로 하는 직업 선택으로, 생활 필수품의 분배에서 자유 경쟁적인 임금 교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동독 청소년들이 새로운 경제 질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생기는 실업인 것이다. 특히, 과거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실업의 의미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동독 지역의 청소년들은 통일 후 겪는 실업 문제로 그들이 이룩한 통일의 의미와 정당성까지 의문시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동독 지역 청소년들의 실업에 대한 공포는 독일 지역에서의 외국인 청소년들에 대한 일자리 박탈과 증오감을 낳는 원인이 되어 외국인 청소년들의 폭력행위를 증폭시키게 되었다.<sup>70)</sup>

동독 정부는 이와 같은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실업수당 지급, 취업 알선, 각 기업체와 협력하여 고용 창출 조치(ABM) 확대, 전직 및 자질 향상 직업 훈련 실시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70) 한국청소년개발원(1994), 전제서, p. 128.

## 2. 제사회화를 위한 교육적 접근 사례

통일 이후 독일 정부는 동서독 학생과 주민의 통합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세웠다. 교육 분야에서의 통합 대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로, 상호 교류적 측면이다. 동서독 지역 학교가 서로 자매결연을 맺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방문과 체류교환을 실시하였다. 둘째로, 정신적이고 의식적인 통합 노력이다. 통일 후 발생한 많은 적응상의 문제점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추진되었다.<sup>71)</sup> 먼저 후자에 관해 고찰하기로 한다.

### 1)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

독일에서 정치교육의 역사는 1945년 2차 대전 이후부터 시작된 긴 여정의 과정을 밟아왔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부터 특히 서독은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민주 시민교육을 실시해 왔다. 물론 당시로서 동독은 '새로운 사회주의 인간형'이라는 서독과는 전혀 다른 교육을 했다. 이처럼, 분단 초기에는 서로 상대방의 체제에 대한 비판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었다.<sup>72)</sup>

그러나 1968년 동방정책 추진과 1972년 동·서독간 기본조약 체결 이후부터 특히 서독의 경우 동독과 통일문제에 대한 교육에서 전향적 자세를 견지하기 시작하였다. 분단상황을 내독 관계로 규정하는 한편, 당장의 통일보다는 먼 장래의 통일을 위해 준비하는 차원의 교육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무엇보다 서독은 동독을 비방하지 않고 적대적인 관계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서독은 동독 주민들과 공통의 문화, 역사 및 언어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서독간의 공동성과 동일성을 찾는데 주력하는 한편, 상호 이해와 교류를 확대해 나갔다. 분단의 원인과 분단 관계사에 대해서도 상황 그대로 이해하도록 하였고, 동독과 그 주민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육을 전개하였다. 또한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거나 어느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다원주의에 기초한 폭넓은 민주시민의

71) 한국청소년개발원(1994), 전제서, p. 168.

72) 이규영(1997), "독일 통일교육 연구", 『신아세아』, 제4권 제4호(겨울호), p. 125.

식을 함양케 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과 비판을 위한 분석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73)</sup> 이처럼 민족공동체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을 위주로 하는 구 서독의 통일준비교육이 독일 통일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와 통일에의 기여를 갖고 있는 독일의 정치교육은 통일을 맞아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일과정에서 전개된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 상황에서 주민들은 적응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고,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구 동독의 주민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고, 다원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가? 여기서 새로운 정치교육의 필요성과 과제가 등장하였다.

특히 통일 후 동독인에 대한 정치교육을 살펴보면, 동독 교육의 문제는 국민에게 사회주의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데 있었다. 또한 사적 갈등이 권위주의적 방법에 의하여 해소되어 사고력 저하와 함께 개성상실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동독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은 동독지역 주민들이 과거의 부담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sup>74)</sup>

① 정치교육은 모든 동독 지역 주민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며,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있는 일상생활을 탈정치화 하도록 하는데 방향이 모아지고 있다.

② 정치교육은 또한 국가의 명령에 익숙하여 늘 위로부터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던 동독 주민들을 ‘보호문화’(Nischenkultur)로부터 탈피하도록 교육시킨다.

③ 정치교육은 민주사회에서는 갈등이 없을 수 없고 또 갈등을 일방적으로 은폐할 수도 없으며, 서로의 이해를 표출하고 관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되 궁극적으로는 타협을 하는 ‘민주적인 논쟁문화’가 정착되도록 교육시키고 있다.

한편, 구 동독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sup>75)</sup> 첫째는, ‘반과시즘 요법’으로 통일 초기 사회문제화 되었던 극우주의

73) 상계서, p. 127.

74) 황병덕(1995),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pp. 37~42.

75) 한국청소년개발원(1994), 전계서, p. 182.



성향을 점차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구 동독의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정권이 나치 시대의 파시즘 정권에 대항하여 반 파시즘을 강조하면서 탄생하였기 때문에, 파시즘 개념이 구 동독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안은 '적용 전략'으로 표현할 수 있다. 구 동독 학생들이 새로운 체제에 잘 적응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체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주임무가 된다. 이미 통일 직후 정치교육의 중요성은 널리 인지되었고, 때문에 정치교육은 곧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었다.

정치교육은 학생들이 복잡한 사회현실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교육은 학생들이 복잡한 세계를 파악하고, 사물관련 지식과 판단능력을 바탕으로 정치와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수업과정이다. 동독지역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국가권위에 의한 지시사항이 아니라 자신의 주도력, 자율성, 창의력 등에 입각한 새로운 학습방법의 습득이다. 예컨대, 마르크스-레닌주의 역사관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남아있다. 따라서 정치교육의 기본적 입장은 동독지역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판단력 제고를 통해 이들 잔재를 처리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정치교육은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 바이마르공화국 등과 같은 학습단위를 도입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서독의 역사교과서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인식능력이 확대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인식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있다.<sup>76)</sup>

## 2) 교육분야의 상호 교류 사업과 민간단체의 역할

통일 직후 동서독 학생과 교사의 상호이해를 위해서는 상호교류가 필요하다고 보고, 독일 정부는 적극적으로 학생, 교사, 교육행정가의 교류를 촉구하고 추진하였다. 서독 지역의 학교나 교육관련단체 뿐 아니라 각종 청소년 단체들이 동독과 자매 결연을 맺고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동서독 간 교육격차 해소

76) 황병덕(1997),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p. 32.

를 위한 연방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은 서독인의 우월감과 동독인의 열등감을 재확인시켜주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일회적인 방문이나 교류가 아니라, 지속적 교류는 양 지역 학생들과 교사들의 심리적 장벽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구 동독 지역의 각종 청소년 사업과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후원하였다. 동독 지역의 청소년 사업, 교회 청소년 사업, 집단 청소년 사업, 청소년 클럽 사업, 청소년 여가 사업, 사회교육적 돌봄, 대중매체 사업 등에서 교류를 통한 서독의 지원과 자문이 큰 역할을 하였다. 각 지방 자치단체들도 기존의 자매결연을 이용하여 동서독 지역간 이질감을 해소하고 친밀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남의 광장이나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히 교회 등 민간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었다. 이 외에도 현대 매스 미디어 사회에서 언론과 방송매체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독일의 언론과 방송은 통일 후 동서독 학생들의 의식의 차이를 조사 분석하고 의식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통해 상호 이해와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4. 통일독일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독일의 통일과정과 교육통합과정은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서로 다른 체제가 통합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제도적인 통합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의 통합이다. 교육분야에서 위 두 가지 통합을 생각해 볼 때, 독일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없다.

제도적인 통합의 노력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본격적으로 시도되었으나, 1년 후 통일이 되자 무산되고, 서독의 교육이 동독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의식의 통합 역시 준비 없는 급속한 통일과 통일 후유증으로 인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독일의 통일 방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교육과 관련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sup>77)</sup>

첫째, 독일 통일이 낳은 최대 문제점은 통일이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교육통합 역시 최대 문제점은 통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교육통합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부족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 당시 동서독이 통일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분야에서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의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독일에서는 통일이 급속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통합을 위한 과도 규정을 만들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북한도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되면 통일 이후 발생할 여러 문제점과 후유증을 예상해 남북한 교육체제의 완전한 통합 이전에 통용되는 잠정적 학교운영 방안, 교육과정 계획안, 교재 개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통합 관련 연구가 구체화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탈북 청소년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와 민간단체의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일은 통일 전 이미 상호교류를 추진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심리적 장벽을 해소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그나마 통일 후유증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통일전문가들은 증언하고 있다.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 학생 및 교사의 상호 방문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 남북한 교사와 학생의 상호 교류 사업을 조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교류는 오히려 거리감을 낳게 하고, 심리적 벽을 높이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동서독인들 사이에서도 관계를 꾸준히 맺고 있는 경우에는 심리적 장벽을 찾아볼 수 없지만, 일시적 교류는 오히려 심리적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경험적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학생들의 교류에서는 단지 학교 등 교육기관 뿐 아니라,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동서독의 경우 사회단체와 종교단체에서 청소년 교류 관련 여러 사업을 추진해 동서독 학생들의 이질감을 줄이고, 통일 후 구

---

77) 한국청소년개발원(1994), 전개서, p. 195.

동독 학생들의 적응을 도왔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셋째, 구 동독 학생들은 기성세대인 어른보다는 빨리 새로운 사회 체제에 적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상의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구 동독 학생들의 부적응과 갈등 양상이 특별히 통일 초기에 심각하였던 점은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 초기 사회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 심리적 갈등이 폭력과 부적응으로 표출되었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의 대량 탈북에 따른 문제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부적응과 갈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학생들의 갈등 요인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통일 준비 교육으로서 우리가 독일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민주시민교육이다. ‘정치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서 행해진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가르쳐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토대가 되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사고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고, 문제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민주주의적인 가치관은 통일 이후 독일 사회가 갖고 있는 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민주적인 독일 사회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해방 이후 우리 나라에서도 중요한 교육이념으로 수용되었으나, 아직 교육현장에서 자리 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민주시민교육을 점검하고 우리 교육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통일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신념을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분단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 장임을 항상 생각하고 국제 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잘 적응하며, 민족의 슬기와 역량을 총집결하여야 할 것이다.

## V. 탈북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방안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부적응의 원인에는 남북한간 각종 제도와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원인은 이러한 제도와 문화의 차이를 이면에서 뒷받침하는 사회이념과 가치관의 다름이다. 이 점은 구동독 청소년들의 문제점 분석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어쩌면 제도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현재는 심각할지라도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그 이면에 담겨있는 사회·심리적, 정신적 가치와 이념의 이질성의 극복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이라 생각한다. 통일독일이 그토록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에 역점을 두는 연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을 위한 교육방안의 모색에는 이러한 사정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점은 통일 이후까지도 고려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재사회화 교육의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한 여러 교육 방안들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구안해 보기로 한다.

### 1. 재사회화 교육의 기본 방향

통일독일의 예를 他山之石으로 삼을 때, 재사회화 교육의 기본 방향은 통일 이후까지도 염두에 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재사회화 교육은 크게 보면 통일대비교육과 다르지 않다. 통일은 한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대변혁이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재사회화 교육의 대상은 반드시 북한동포일 수만은 없다. 다만 예상되는 통일이 적어도 민주사회로의 통일이라는 점을 상정할 때 아무래도 주 교육대상이 북한주민과 청소년들일 뿐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의 기본 방향을 다루어져야 할 교육의 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설정해 두기로 하면 정체성교육,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공동체교육이 되어

었다.

그림 <IV-1>에 의하면 동독의 학제는 우선 탁아소부터 시작된다. 탁아소는 0세에서 3세까지의 아이가 맡겨지는데 기업체와 협동농장에서 정부 허가를 얻어 설립하며, 건강성에서 관찰한다. 1987년까지 0세에서 3세까지 아동의 68%가 수용되었다.<sup>57)</sup>

유치원은 1946년부터 단일제 교육제도의 취학 전 교육으로 가능하였으며 1970년대 이후 유치원교육의 이념화가 강조되었다. 대부분이 국립이고, 아주 적은 수를 기업이 운영하였는데 종일제 수업을 하였다. 3세에서 6세 사이의 94%의 어린이가 유치원에 다녔다.

일반학교는 만 6세부터 10년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10년 기간을 초급(1-3), 중급(4-6), 상급(7-10)학년의 3단계로 나누었다. 학생들은 5학년부턴 직업교육과 러시아어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7학년때의 교과 과정은 수학과 자연과목을 제일 강조하였고(34%), 다음에 언어교육(25%)과 사회교육(15%), 그 다음에 예체능교육(12%)과 기타과목을 가르쳤다. 10년제 학교에서는 모두 18과목을 가르쳤다. 대학에 안 가는 학생은 9학년부턴 직업학교로 진학할 수도 있었다. 10학년 의무교육을 마친 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선발시험을 거쳐서 12학년으로 진학하게 되는데 약 10% 정도가 뽑혔다. 11학년과 12학년은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아비튜어 과정이다. 또 직업학교에도 이비튜어코스가 있는데 기간이 3년이다. 그 밖에 기술학교, 전문학교를 마치고도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다.<sup>58)59)</sup>

서독의 학교제도는 복선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독의 기본적인 학제와 바이에른주의 학제를 소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sup>60)</sup>

57) 신세호(1993), 독일교육통합과 과생문제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 257.

58) 김영식(1987), 학제의 발전방향, 교육개혁심의회, p. 177.

59) 신세호(1993), 전제서, p. 257-259.

60) 상계서, p. 283.

② 서독의 학교제도

<그림 N-2> 서독의 학교제도

종합대학 기술단과대학 문과단과대학 예술단과대학		전문대학 종합전문대학 행정전문대학			전문 학교	야간 학교	직업항상 학교	23	고등 과정
					22				
					21				
					20				
종합 학교		문과 학교	문과 학교	실험상급 학교	직업 전문 학교	직업 학교 (전일제)	이원화교육 (산학협동훈련)  기초직업훈련	18	2단계 중등 과정
								17	
		실과학교		기간학교				16	1단계 중등 과정
								15	
		공동교육과정		(상급학교 선택기간)				14	
								13	
기초학교								12	초등 과정
								11	
								10	
								9	
유치원								8	유아 과정
								7	
								6	
								5	
								4	
								3	
								2	

야 할 것으로 본다.<sup>78)</sup>

## 1) 정체성 교육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이란 한 국가의 국민을 결속시키는 유대감으로서 애국과 충성의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가정체성의 확립은 국민적 통합과 결속을 위해서도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하겠다. 이렇게 국가와 국민간에 강한 일체감을 가지려면 국가가 합리적이고 동시에 민감한 대민 태도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 정통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sup>79)</sup>

한 국가의 영토 안에 살고 있는 국적을 지녔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이 그 국가의 국민이 될 수는 있지만 국가를 사랑하고 믿고 또 일체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이 같은 수준의 국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즉 국민의 구성적 요건보다는 한 개인의 심리적, 내적 조건이 더 중요시될 수도 있다. 국가정체성은 바로 후자의 경우와 같이 한 개인이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신념과 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정체성 교육은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키워주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온 것이나 다름없거니와, 이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갈등과 불안정이 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새로운 의미의 국가정체성을 심어주어야 한다.

길게 보면 남북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리고 통일이 되었을 때 빠른 통합교육으로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시켜야 만이 국가와 사회의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진정한 한민족 국가의 지름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 2) 민주시민교육

탈북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80)</sup> 민주시민교육이란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민주적인 생활규범 등

78) 최현호(1999), "통일교육 방향에 대한 이론적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제1호 pp. 280-289 재구성

79) 상계서, p. 290.



에 대한 교육으로서 인간존엄성의 신념화, 기본생활예절, 질서의 습득, 민주적 절차 및 과정에의 숙달과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민주 시민적 자질은 한반도 통일의 촉진제가 되기 때문에 통일대비 교육을 실시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통일사회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사회성원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내부의 화합과 단결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민족사회의 융화와 단결을 추구하려면 민주 사회의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가치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 3) 평화교육

평화교육은 근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사는가를 의식화시키는 교육이다. 그리고 존재하는 갈등관계를 공격성이나 배타성, 폭력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평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평화교육은 탈북 청소년들로 하여금 민주사회에서의 갈등의 상시성에 대한 이해와 갈등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을 함양해 주기 위해 필수적이다.

길게 보아 평화교육은 남북한간의 갈등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통일된 한국사회에서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한반도와 주변국의 평화를 정착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이념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간에 심화되어온 적대감과 적개심을 해소하려면 이해와 화해를 추구하는 자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 내에 또 다른 폭력과 전쟁을 방지하려면 국내외적인 평화 저해 요인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주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필요한 의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sup>81)</sup>

평화교육은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통하여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21세기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지구공동체 의식을 확산하는데 공헌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평화교육은 폭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의 구현을 위한 노력을 의미하기도 한다.<sup>82)</sup>

80) 한만길(1997),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교육과학사, p. 98.

81) 한만길(1994), “학교통일교육의 사회과학적 접근모색”, 『통일문제연구』, 제6권 2호, pp. 179~180.

82) 21세기위원회(1992), 『2020년의 한국과 세계』, 동아일보사, p. 351.

#### 4) 민족공동체교육

탈북 청소년들에게 시급한 것은 국가정체성 교육일 것이지만, 길게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버리고 온 북한이 언젠가는 남한과 함께 통일하여 같이 삶을 영위해갈 대상임을 주지시키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족공동체 교육이 그것이다. 그리고 민족공동체 교육은 통일을 앞당기는 교육이 되는 동시에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교육적 과제라 하겠다.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의 이념은 이질화된 남북한을 하나의 민족으로 융합하여 공동체적인 삶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민족공동체라는 것은 '민족국가'의 갈등과 분쟁을 지양하고 민족의식과 국가의지를 바탕으로 하여 공동체의 기능과 문화를 통합하여 보다 이상적인 민족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동질적 집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한반도 내에서 민족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생존공동체, 복지공동체, 이념공동체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sup>83)</sup>

첫째, 생존공동체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남북한의 관계개선은 남북한 모두에게 대외적 자율성의 제고는 북한이 생존공동체라는 하나의 단위체로서 작동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둘째, 복지공동체의 형태를 지녀야 한다. 한반도의 전체구성원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복지공동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안보와 복지공동체인 동시에 이념 공동체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민족주의의 형태에 기초가 되는 것은 단순히 체계내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통합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통합민족주의에 기초를 두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민족공동체의식의 함양교육은 맹목적인 민족우월주의나 민족지상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결속력에 의해서 민족이 집단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민족공동체 교육은 우리 민족의 실질적 통합을 현실적으로 가능케 하는 교육으로서 민족 공동체의 존속과 분단 극복을 위한 실천의지 및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고양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결국 남북한간의 이질화와 민족상잔의 불행한 과거를 극복하고 민족적 동질성에 깊은 신념을 갖게 하는 것이다.

83) 하영선(1998), "통일 접근과정으로서의 민족공동체 형성모색", 박관용(1998) 『통일문제의 이해』, 대한기획, p. 226.

## 2. 교육의 실천적·단계적 접근 방안

이상에서 재사회화 교육의 기본 방향을 통일 대비라는 장기적 안목에서 설정하여 보았다. 국가정체성 교육, 민주시민 교육, 평화 교육, 민족공동체 교육이 그것이다. 이제 이러한 교육의 이념적 지표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교육의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현재 탈북 청소년들을 돕는 교육방안은 훨씬 더 구체적인 기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그것은 남북한간 각종 제도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게 하는 실천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Ⅲ장의 고찰에서 보았듯이, 하나원의 교육을 마친 탈북 학생들이 남한 학교에 편입하여 학업을 따라가기가 힘든 상황이다. 하나원의 1년 동안의 교육기간 중 학교 적응을 위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들이 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은 별도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입학 후 학교에서도 적응을 위한 교육은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의 제반 영역에서 제대로 적응해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령은 미래 계획에 큰 작용을 하는 요소이므로 젊은 층과 장년 층을 구분하여 특성화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sup>84)</sup> 또한 젊은 층의 교육도 학교 급별에 따라 초등, 중등, 대학교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탈북 초등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그 결과 남한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학교 적응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탈북 학생이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 받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남한 생활이 시작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남한 문화가 오히려 이질적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학생의 문화 충격을 완화시키고, 남한 사회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껴 자신의 학습에 대한 욕구를 증진시켜 가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급별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둔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편성 운영함으로써 학업증진 도모 및 교육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이 논문에서는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여

---

84) 이상만(2000), 전제서, p. 76.

보기로 한다. 요컨대 그것은 탈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첫째, 특별 탈북청소년만의 특별반 운영 단계, 둘째, 탈북 학생과 남한 학생들간의 연합활동 단계, 셋째, 일반학급 편입 단계이다.

## 1) 탈북 청소년만의 특별반 운영

현재는 탈북학생이 소수이나 대량 이탈 사태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특별반 운영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 언어 적응 및 학습 적응 : 남한 말과 북한 말의 차이점을 알고 언어의 이질화를 해소하도록 돕는다. 또한 기본학습 훈련 및 주지 교과 교육을 세분화된 능력별 학습을 통하여 기본학력을 갖추도록 한다.
- 문화 적응 : 한국의 생활 습관, 예절, 문화에 익숙하도록 돕는다.
- 생활 적응 : 일반 학급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게 한다.

이상에 대해서는 질을 달리하여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안·제시해 보기로 한다.

## 2) 연합 활동

탈북 청소년만을 위한 특별반에서만 학습하다가 갑자기 일반 학급에 편입하게 되면 급격한 학습 환경의 변화를 느껴, 또 다른 적응을 요하게 되므로 평소부터 일반 학급의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우 관계, 사회성의 발달, 일반 학급에서의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1) 전교·학년 활동

- ① 재량활동, 특별활동의 계발활동, 전교어린이회 활동, 현장 견학 활동 등은

일반 학급과 함께 한다.

② 북한이해의 날을 계획하여 일반 학급과 합동 운영한다.

## (2) 형제, 자매 맺기 수련 활동

### ① 목적

탈북 학생들끼리 형제자매를 맺고 공동 생활을 통하여 서로 보살피고 돕는 수련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날로 개인주의화해 가는 학생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형제자매로서의 우애를 갖게 한다. 아울러 심신을 단련하고, 사물놀이, 탈춤 등의 한국의 전통 문화와 생활 예절을 익히며 일상의 학교 생활에서도 서로 돕고 보살피주는 형제애를 유지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② 방침

- 참석 대상은 탈북청소년만의 특별반 1~6학년 학생으로 구성한다.
- 가족 당 4~5명으로 구성하여 가족 단위로 편성한다.
- 가족 구성은 남녀의 수, 탈북청소년만의 특별반에 같이 재학중인 형제 관계를 고려하여 저학년, 고학년, 남녀의 수 등이 고루 배분되도록 편성한다.
- 가족 중 최고 학년이 형과 누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보다 아래 학년의 동생들을 돌보게 한다.
- 학생들의 사고에 대비하여 언니들은 항상 관심을 갖고 아우들을 보살피도록 한다.

## (3) 교류 학습 추진

특설 학급이라는 벽을 넘어 일반 학급의 학생들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문화 체험의 차이를 인정하고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교류 학습을 실시한다. 일상의 계발 활동, 체육 활동, 산행 및 수련 활동을 함께 함으로 인하여 남한 생활 적응력을 높이게 되고, 탈북 학생이 일반 학급으로 편입이 되면 북한 이해학습 및 통일교육에서 좋은 의미에서의 「산 교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호 계발을 위한 활성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

을 계기로 일반 학급의 학생도 남한 문화 중심주의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에의 이해와 유연한 사고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 3) 일반 학급 편입

#### (1) 목적

탈북 학생들이 일정 기간의 적응 과정이 지난 후 능력에 따라 일반 학급에서 수학이 가능하다고 판정되면 일반 학급으로 편입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일반 학급에서 동화되어 또래의 아이들과 적응하면서 원만한 사회 생활 및 학습의 과정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남한의 생활에 적응하게 한다.

#### (2) 방침

· 1차로 담임 교사가 심리적, 사회적, 언어적, 지적 수준의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일반 학급에서 학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선정한다.

· 2차로 교장, 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탈북청소년만의 특별반 전체 교사가 참석, 심사하여 결정한다.

· 시기는 1학기말과 학년말에 실시한다.

이상의 세 가지 단계적 접근 방안 이외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제안을 결들여 두기로 하면 다음과 같다.<sup>85)</sup>

① 초등학생의 연령, 학력 등이 상이함으로 인해 획일적인 사회적응교육으로는 성공적인 정착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연령과 학력 등을 고려, 초등학생 특별 프로그램을 별도 편성·운영한다.

② 초등학교 중퇴자는 학력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아직은 사례가 적어 어려운 점이 예상되나 하나원 부설 특별학교 설립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서울교대 부설초등학교 및 12개 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내에 정부 차원에서 특수학급신설을 협의하여 편입 조치하는 효용성 검토가 필요하다.

85) 하나원(2000), 「주요 업무현황(제2차 자문위원 회의자료)」을 참고로 하여 초등학생교육 기본원칙을 구안함

③ 초등학교 방학중에는 『북한인권시민연합』 등과 연대하여 자원봉사자 협조로 초등학생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④ 학습지도 내용은 수학능력 등을 고려한 내용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여건상 공통과목에 대한 기초학습 지도를 주 내용으로 하되 개인별 자율학습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⑤ 학습지도와 병행하여 학교제도 및 학교생활 등 정규교육이외의 진학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부모 등 가족에게도 주지시켜 현실적 인식을 갖도록 유도한다.

⑥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기간 중 학교생활만 아니라 지역 내 특별활동에도 적극 참여토록 하여 학교 생활 적응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 3. 탈북 청소년만의 특별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구안

#### 1) 언어적응 및 학습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볼 때, 탈북 학생은 언어, 풍속, 습관, 교육 제도 등이 상이한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생활해 왔기 때문에 국어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교과와 종류나 내용, 수업 방식이 다른 교육을 받아온 관계로 남한의 교육 수준과 비교해서 학력의 부족이 눈에 띄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탈북 후 학교 생활에의 적응을 곤란하게 만드는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각양각색의 경로를 통해 탈북을 감행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의 교육 활동을 시도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능력에 따른 개별 지도를 하여 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에 몰입하도록 한다.

통합 교육 과정의 운영으로 언어 기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언어의 복선적인 운영과 주지 교과와 세분화된 능력별 수업을 받으면서 스스로 필요한 학습의 형태와 단계를 찾아서 학습하게 한다.

## (1) 언어 학습 시간의 확대

남북한 언어의 이질감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을 극복시키기 위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탈북 학생들이 학교적응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시급한 과제는 언어 적응이므로, 언어 능력이 향상되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다른 교과목의 시간을 주 2시간씩 언어 학습 시간으로 전환 배정 운영한다.

## (2) 국어 능력별 수업 운영

- 한국어 이해 및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하여 1~3학년, 4~6학년을 각각 한 그룹으로 묶어 3단계로 구분하여 능력별로 주 2시간씩 집중적으로 언어 학습을 한다.

## (3) 학습 적응을 돕기 위한 학습 프로그램



### ① 탈북 청소년만의 특별반 학습 프로그램

탈북 학생들만의 특수한 상황과 교육적 한계를 고려하여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을 극복시키기 위한 아래의 <표 V-1>과 같은 탈북 청소년만의 특별반 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표 V-1> 탈북 청소년만의 특별반 학습 프로그램

구분	목 표	주요학습내용	지도방법의 특징, 기타
개별 학습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북한에서의 학습 경험에 맞추어 학생의 실태를 파악해 나가면서 개인차에 따른 지도를 하고, 학생은 자기 능력에 맞는 학습의 내용을 선택하여 학습을 받는다.	· 국어(주 6-7시간) · 수학(주 5시간)	· 팀티칭으로 운영 (2개 학년이 한 학년이 됨) · 개별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기주도 학습 형태
입문기 프로그램	입학한 학생에 대한 안내를 하여 안심하고 남한에서의 생활, 본 학급의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 오리엔테이션 · 한국 문화, 역사 (공통 사회 학기당 2~4주 해당)	· 수시 입학제를 하고 있어서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과 새 학기에 공통 사회 프로그램을 실시(학교 탐험, 학교 규칙, 학교의 행사, 한국의 역사, 지리 풍습 등)
종합 프로그램	체험 학습을 통하여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북한문화체험을 일반 학생들에게 전하여 상호 이해를 깊게 한다.	· 한국 문화 체험(1학기당 2회 이상 실시) · 북한문화를 알려주는 북한이해 학습(1학기에 실시)	· 현장 견학, 산행, 현장학습 (민속박물관 견학, 고궁, 한국 음식 맛보기, 한국의 놀이, 한국의 예절 등) · 북한이해교육 프로그램 (북한의 생활 습관, 문화 행사, 복장, 음식, 예절, 놀이 등을 소개 또는 전시)
교과 학습 프로그램	각 교과목의 기본적인 학습 내용이나 학습 방법의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학생 스스로 서로 돕는 마음을 갖는다.	· 통합(도덕, 국어 I, 음악, 미술, 실과), 국어II 사회, 수학, 자연, 체육, 영어)	· 탈북 학생들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부진을 극복하고 기초기능을 철저히 익히도록 지도 · 소인수 학급의 이점 살리기 · 교사의 팀티칭
개인 능력 신장 프로그램	기본 교과 외 시간에 학생들이 갖고 있는 소질을 계발하도록 한다.	· 특활, 학교재량시간, 특기적성반, 아침자습시간	· 특활 시간 및 방과 후에 개인의 소질에 맞는 지도

② 통합 교육 과정 구성<sup>86)</sup>

탈북 학생의 수는 현재로서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1-2명의 어린이를 위하여 한 학급을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현재 초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수학급의 개념을 도입하여 연령이 아닌, 학력 수준을 고려한 저, 중, 고학년으로의 편성이 불가피하며 인원이 지극히 제한적일 때에는 학년을 초월한 특별 통합반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통합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탈북 초등학생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표 V-2>

<표 V-2> 통합교육과정 구성 (1학기)

월	월별주제	주별 소주제	월별주제	주별 소주제	월별주제	주별 소주제
학년		1~2학년		3~4학년		5~6학년
3월	나	· 나의 소개 · 예의바른 인사 · 친구 · 심부름	여럿이 함께	· 나의 생활 · 학교 생활 · 가정 · 이웃 생활 · 사회 생활	우리말 과 글	· 바른 우리 말 · 의견 나누기 · 아름다운 우리말 · 이야기 글
4월	우리 학교	· 우리 · 아기나무 · 환경 · 건강과 안전	봄의 생활	· 봄소식 · 생물의 성장 ·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 동식물(꽃, 양서류)	생물과 환경	· 봄 · 동물 · 식물 · 환경 · 여행의 세계
5월	가족	· 형제간의 우애 · 고마우신 부모님 선생님 · 다른 나라의 예절	감사하 는 생활	· 다정한 친구 · 고마우신 부모님 · 선생님의 은혜 · 다른 나라의 예절	행복한 가정 생활	· 소중한 친구 · 고마우신 부모님 · 선생님의 은혜 · 세계 여러 나라
6월	우리 이웃	· 여럿이 모이는 곳 · 이웃사람이 하는 일 · 산, 들, 바다 · 나라 사랑	우리 글 문화	· 우리말 · 우리 속담 · 우리 문화 · 나라 사랑	우리 민족	· 우리의 속담 · 옛 노래 · 옛 이야기 · 나라 사랑
7월	생물	· 생물과 무생물 · 동물, 식물	여름철 생활	· 여름철 건강 · 1학기를 돌아보며	상상의 세계	· 상상의 나라 · 우리들의 잔치

86) 제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의 1-6학년 학년교육과정과 서울대학교사범대학교부설초등학교의 귀국학생반 학년교육과정을 참고, 북한이탈 초등학생의 특수성을 감안, 재구성하여 만들

〈표 계속〉 통합교육과정 구성 ( 2학기 )

월	월별주제	주별 소주제	월별주제	주별 소주제	월별주제	주별 소주제
학 년	1~2학년		3~4학년		5~6학년	
9월	운동회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우리 스스로 ·운동회	주변의 동식물	· 여름 방학 · 식물 · 동물1(곤충) · 동물2(연극)	전통 문화	· 우리 문화 · 우리 가락 · 우리 미술 · 훌륭한 인물
10 월	가을	·추석 ·재미있는 말놀이 ·소풍 ·가을 이야기	자랑스 런 우리 나라	· 우리 명절 · 우리 글 · 민속놀이 ·우리 나라 산과 들	민주 사회	· 주장 · 토론 · 자율 · 협동
11 월	독서(시, 이야기)	· 이야기 주머니 · 어떻게 할까요 · 옛날 이야기 · 나라 사랑	탐구하 는 생활	· 이야기 세계 · 기구 사용하기 · 깨끗한 환경 · 통일	미래의 세계	· 노래하는 생활 · 꿈을 가꾸며 · 꿈을 키우며 · 더 큰 세계로
12 월	주위 환경	· 겨울(날씨) · " (계절) · 내가 살던 나라	계절과 우리 생활	· 서울 · 겨울 생활 · 북한의 날씨	세계를 향하여	· 통일 · 일의 세계 · 세계 속의 한국
2월	학년을 마치며	· 학년을 마치며 · 총정리		· 학년을 마치며 · 총정리	새로운 출발	· 학년을 마치며 · 총정리

## 2) 한국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 (1) 현장 견학 학습

#### ① 목 적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교과서 중심의 지식 편중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 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학교 교육 내용을 보충 심화하고 창의성·자율성·협동심을 길러 자주적인 학습 능력과 전인적인 인간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

## ② 방 침

- (가) 자율 활동과 교사의 지도 활동이 조화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 방법을 다양화한다.
- (나) 각 교과에서 현장 학습 관련 제재를 선정하여 현장학습이 가능한 교과시간을 활용한다
- (다) 월 1회 이상 저, 중, 고학년으로 그룹을 지어 여건에 맞게 실시한다
- (라) 학교, 지역 사회, 근거리 내의 교과, 체험, 현장 학습에 도움이 되는 곳을 이용한다.
- (마) 학생의 요구, 흥미, 관심을 고려한 학습 방법을 강구하고 자주적이고 탐구적인 학습을 장려한다.
- (바)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한 교과에 편중되지 않게 실시하며 운영시수를 교과에 합산한다.
- (사) 학생 안전 관리 및 재난 대비 교육에 철저를 기한다.
- (아) 운영상 필요시에는 명예 교사(행사 지원)의 지원을 받는다.

## ③ 운영 방법

- (가) 교육 과정과 지역 특성, 학교 실정, 학생·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월별 활동 주제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 (나)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창의적인 사고력과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학습 활동을 전개한다.
- (다) 학생들의 개성, 흥미, 능력을 존중하며 즐겁게 참여하도록 학습의 개별화에 노력한다.
- (라) 학생들에게 공동 학습 과제를 제시하고, 소집단 학습 활동을 통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
- (마) 현장 학습에서 공중 도덕 생활과 환경 교육을 통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 (바) 현장 학습시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1주전) → 현지 답사 → 학생의 사전 지도(안전지도 포함) 등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 운영한다.
- (사) 사전·사후 지도를 철저히 하며 특히, 현장 학습 후에는 관찰 기록, 느낀 점, 참관 소감 등을 평가한다.

## 3)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일반 학급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기본학습태도 훈련<표 V-3>과 기본적인 생활태도를 기르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 학습적응을 돕는 교

육을 한다.

(1) 기본 학습 태도 훈련

<표 V-3> 탈북 청소년만의 특별반 기본학습태도 훈련

순서	제 목	훈 련 내 용
1	책상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교한 후 시간표 순서대로 책은 왼쪽, 공책은 오른쪽에 놓는다.</li> <li>○ 공부할 때는 책은 왼쪽, 공책은 오른쪽에 놓는다.</li> <li>○ 가방은 의자 뒤에 걸어둔다.</li> <li>○ 사물함에 넣어둘 물건을 정해 정돈해 둔다.</li> </ul>
2	바른 자세로 앉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상과 가슴 사이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띄우고 다가앉는다.</li> <li>○ 허리와 머리를 바로 하고 앞을 본다.</li> <li>○ 손은 자연스럽게 무릎에 놓는다.</li> <li>○ 의자를 당겨 앉는다.</li> </ul>
3	연필 비로 잡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지와 집게 손가락 끝 사이에 연필의 짙은 부분이 2~3cm되는 곳을 끼운 뒤 엄지로 밀어 45~60° 눕혀 쓴다.</li> <li>○ 고개를 옆으로 숙이지 않아도 쓰는 글을 볼 수 있어야 한다.</li> <li>○ 손가락 힘이 자연스럽게 연필 끝에 미치게 한다.</li> <li>○ 연필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공책 사이에 끼워 둔다.</li> </ul>
4	바른 자세로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과 눈의 거리는 30cm 정도 되게 한다.</li> <li>○ 앉아서 읽을 때는 오른 손을 책 위에 가볍게 얹고 읽는다.</li> <li>○ 침을 문혀 책장을 넘기지 않는다.</li> <li>○ 허리는 펴고 고개는 약간 숙여 읽는다.</li> <li>○ 서서 읽을 때는 의자 옆으로 한 걸음 나와 책을 80° 정도 눕혀 잡고 바르게 서서 읽고 가운데를 구부러 넘긴다.</li> <li>○ 1분에 200~400자 정도의 속도로 읽는다.</li> <li>○ 발음을 분명히 하고 마침표에는 숨을 멈추고, 쉼표에는 잠시 숨을 쉬면서 읽는다.</li> <li>○ 느낌을 나타내면서 감정을 살려 읽는다.</li> </ul>
5	예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일 학교에서 공부할 내용을 읽어 본다.</li> <li>○ 모르는 부분이나 질문할 내용은 -을 쳐 둔다.</li> <li>○ 중요한 것은 간단히 기록한다.</li> <li>○ 그림, 그래프, 조사표 등을 모은다.</li> <li>○ 참고서나 사진 등 학습 자료를 이용해 더 공부한다.</li> </ul>
6	쓰기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리를 바로 하고 왼손 바닥으로 공책을 가볍게 누른다.</li> <li>○ 고개나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여 눈과 학습장과의 거리가 30cm 정도 되게 한다.</li> <li>○ 교과서 글씨 모양으로 쓴다.</li> <li>○ 연필을 바로 잡고 쓴다.</li> <li>○ 학습장을 15° 정도 기울어지게 놓는다.</li> <li>○ 5분 동안에 150자 정도의 속도로 쓴다.</li> </ul>
7	공부할 문제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서 내용에서 공부할 학습 과제를 찾아 “나의 공부할 문제”를 정한다.</li> <li>○ 학습 자료를 생각해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든다.</li> <li>○ 공부할 문제는 2~3개 정도로 만든다.</li> <li>○ 자세하고 구체적인 문제로 만든다.</li> </ul>
8	과제 해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본다.</li> <li>○ 자료실이나 도서실에 가서 참고 도서를 이용하여 과제를 해결한다.</li> <li>○ 참고 도서로는 사전이나 전문적인 책, 전과 지도서 등을 이용한다.</li> <li>○ 과제 해결 내용은 과제 학습란에 쓴다.</li> </ul>

<표 계속> 탈북 청소년만의 기본학습태도 훈련

순서	제 목	훈 련 내 용
9	의견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 의견을 발표할 때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의견을 발표한다.</li> <li>○ 주장과 의견을 분명히 구별하여 말한다.</li> <li>○ 지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똑똑하고 분명하게 천천히 발표한다.</li> <li>○ 저는 ○○에 대하여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입니다.</li> <li>○ 저는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와 같기 때문입니다.</li> <li>○ △△와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기 때문입니다.</li> </ul>
10	손 신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을 처음 발표하거나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가위, 바위, 보 중에서 보를 나타낸다.</li> <li>○ 앉은 자리에서 왼손을 귀 앞부분에 표시한다.</li> <li>○ 의견 일치나 찬성일 때는 엄지와 검지를 포개고 동그라미를 나타낸다.</li> <li>○ 수정이나 보충을 나타낼 때는 가위로 나타낸다.</li> <li>○ 반대 의견을 때는 바위로 나타낸다.</li> </ul>
11	바른 자세로 발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명을 받을 때는 의자에서 한 걸음 옆으로 나와 친구들을 보면서 발표한다.</li> <li>○ 자료를 보이면서 발표할 때는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나가서 발표한다.</li> <li>○ 앞에 나가 발표할 때는 자료대 앞에 서서 발표한다.</li> <li>○ 기록장을 보고 발표할 때는 왼손에 들고 발표한다.</li> <li>○ 교실 안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발표한다.</li> </ul>
12	반대 의견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히 해서 발표한다.</li> <li>○ △△한 점은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기 때문입니다.</li> <li>○ ~~에 대하여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기 때문입니다.</li> <li>○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li> </ul>
13	보충 의견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 의견을 보충할 때는 그 이유를 분명히 해서 발표합니다.</li> <li>○ △△와 ○○의 의견을 생각해 정리해 보면 ××라고 생각합니다.</li> <li>○ △△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기 때문입니다.</li> </ul>
14	질문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하는 내용을 분명히 말한다.</li> <li>- 질문이 있습니다. ~~한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li> <li>-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li> <li>- ○○까지는 알겠는데 ~~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li> <li>- 질문할 때는 간단히 기록해서 발표한다.</li> </ul>
15	듣는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듣는다.</li> <li>○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과 비교하면서 듣는다.</li> <li>○ 필요한 사항을 간단히 개조식으로 기록하면서 듣는다.</li> <li>○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듣는다.</li> </ul>

<표 계속> 탈북 청소년만의 특별반 기본학습제도 훈련

순서	제 목	훈 련 내 용
16	조별 학습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별 학습의 과제나 내용을 정한다.</li> <li>○ 조장이 사회를 보고 다른 사람은 자기 생각을 발표한다.</li> <li>○ 조원들은 토의에 참가하고 각각역할을 분담한다.</li> <li>○ 각자 해결할 문제를 정한다.</li> <li>○ 학습장에 기록하여 발표할 준비를 한다.</li> </ul>
17	조별 토의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생각: ○○와 같은 생각이다.</li> <li>○ 보충 생각: ○의 의견에 △△를 더 보태고 싶다.</li> <li>○ 단정 의견: 그것은 ○○이다.</li> <li>○ 반대 의견: 나는 ~~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기 때문이다.</li> <li>○ 수정 의견: 좀 이상한데 ~~한 점을 ○○하게 고쳤으면 좋겠어 그 이유는 ××이기 때문이야</li> <li>○ 질의 의견: ○○를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설명해 줘.</li> </ul>
18	조장의 말하기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장은 사회를 맡아 조별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진행합니다.</li> <li>-같은 생각: 그런 것 같아</li> <li>-발표 권장: 다른 의견은 없니?                   너의 의견은 ?</li> <li>-의문이 날 때: 질문은 없니? 다시 생각해 봐, 왜 그렇게 생각하니?</li> <li>-수정하려고 할 때: 고쳐야 할 것은?</li> <li>-대립된 의견을 조절할 때: 두 의견을 살펴보자</li> <li>-확인하려고 할 때: 어디가 잘못되었을까?</li> </ul>
19	조별 학습장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별 학습 토의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단히 기록한다.</li> <li>○ 기록 순서</li> <li>-날짜 및 과목:</li> <li>-학습 주제(과제):</li> <li>-분단 학습 내용:</li> </ul>
20	참고 도서 이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하려는 내용과 관계 깊은 책을 찾는다.</li> <li>○ 목차에서 필요한 곳을 찾아낸다.</li> <li>○ 조사한 내용은 개조식으로 간단히 적는다.</li> <li>○ 필요한 그림이나 표, 그래프를 옮겨 쓴다.</li> <li>○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li> <li>○ 조사한 것과 못한 것을 구별한다.</li> </ul>
21	사전 찾는 방법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르는 낱말은 사전으로 낱말 뜻, 비슷한 말, 반대말을 찾는다.</li> <li>○ 백과사전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li> <li>○ 모든 낱말은 으뜸꼴, 명사형을 찾는다.</li> <li>○ 어휘는 첫 글자의 자음 순서대로 대강의 위치를 알아낸 다음 가운데의 모음 순서, 받침의 자음 순서로 찾는다.</li> <li>-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li> </ul>
22	복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 돌아와서 스스로 공부한다.</li> <li>○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에는 —을 한다.</li> <li>○ —친 것을 다시 읽어본다.</li> <li>○ 예상되는 문제를 만들어 답을 써 본다.</li> </ul>
23	학습장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장 정리는 항목별로 요약하여 개조식으로 쓴다.</li> <li>○ 교과서 글씨체로 쓴다.</li> <li>○ 요소나 내용이 바뀔 때에는 한 줄을 띄우고 쓴다.</li> <li>○ 대단원이 바뀔 때는 두 줄을 띄우고 쓴다.</li> </ul>

(2) 기본적인 생활태도를 기르기 위한 훈련

일반 학급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표 V-4>와 같이 기본적인 생활태도를 기르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 학교 적응을 돕는 교육을 한다.

<표 V-4> 기본적인 생활태도를 기르기 위한 훈련

순	구 분	지 켜 일
1	등교할 때 지킬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학로로 다닌다.</li> <li>○ 교복을 반드시 입고 다닌다.</li> <li>○ 운동장을 건너 다니지 않는다.</li> <li>○ 운동장에서 공운동을 하지 않는다.</li> </ul>
2	실내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왼쪽으로 발꿈치를 들고 사뿐사뿐 걷는다.</li> <li>○ 실내에서는 소곤소곤 이야기한다.</li> <li>○ 계단을 다닐 때는 조용히 왼쪽으로 다닌다.</li> <li>○ 특별실이나 식당으로 다닐 때는 줄을 서서 다닌다.</li> <li>○ 현관이나 복도에서 장난치지 않는다.</li> </ul>
3	조회 시간에 지킬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책상 속에 넣는다.</li> <li>○ 당번은 TV를 켜다.</li> <li>○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li> <li>○ 애국가나 교가를 부를 때는 바른 자세로 서서 힘차게 부른다.</li> <li>○ 운동장 조회시는 줄을 맞추어 나가 지정된 자리에 선다.</li> </ul>
4	쉬는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변을 보거나 물을 마신다.</li> <li>○ 다음 시간 공부할 준비를 한다.</li> <li>○ 남의 교실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복도를 다닌다.</li> </ul>
5	화장실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크를 하고 문을 연다.</li> <li>○ 바른 자세로 앉는다.</li> <li>○ 용변 후에는 밸브를 열어 사용한 후 다시 잠근다.</li> <li>○ 휴지를 필요한 양만 사용하고 휴지통에 넣는다.</li> </ul>
6	당번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학생보다 조금 일찍 등교하고 하교한다.</li> <li>○ 등교 즉시 창문을 열고 간단한 아침 청소를 한다.</li> <li>○ 화분에 물을 준다.</li> <li>○ 교실 뒷 정리를 하고 아침 자습지를 책상 위에 올려 놓는다.</li> </ul>
7	점심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사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li> <li>○ 줄지어 식사를 차례로 받는다.</li> <li>○ 자기 자리에 앉아 남김없이 먹는다.</li> <li>○ 이야기를 하거나 떠들지 않는다.</li> <li>○ 식사 후에는 불소 양치를 한다.</li> </ul>
8	청소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상과 의자를 소리나지 않게 옮긴다.</li> <li>○ 문을 열고 먼지를 던진다.</li> <li>○ 비로 쓸고 바닥을 닦는다.</li> <li>○ 책상과 의자를 내리고 줄을 맞춘다.</li> <li>○ 청소 용구를 정돈하고 창문을 닫는다.</li> <li>○ 신문이나 유인물을 올려 놓는다.</li> <li>○ 자기의 담당 구역을 열심히 청소한다.</li> </ul>
9	도서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측 통행을 하며 도서실로 이동한다.</li> <li>○ 도서실 이용 규칙을 잘 알고 입실한다.</li> <li>○ 대출 절차에 따라 책을 빌린다.</li> <li>○ 소리를 내지 않고 책을 읽는다.</li> <li>○ 시설물이나 책을 손상시키지 않는다.</li> </ul>
10	하교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의 물건이나 책가방을 챙긴다.</li> <li>○ 통학로를 이용하여 하교한다.</li> <li>○ 다른 곳에서 놀지 말고 곧장 집으로 돌아간다.</li> <li>○ 균것질을 하지 않는다.</li> </ul>



## VI. 요약 및 제언

### 1) 요약

북한을 이탈하는 탈북 주민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단위로 북한을 이탈하는 등 그 형태와 방법도 달라지고 있고, 북한이탈의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북한을 이탈한 탈북 주민들이 부푼 꿈을 가지고 그 정착지로 남한을 선택하지만, 그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해 가기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은 남한 사회에서 많은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과 부적응의 양상을 표출하고 있다.

탈북 주민들의 수의 급증에 따라 탈북 청소년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도 역시 남한 사회 적응에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그들은 남한의 학교생활을 통해서 삶의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데 학교 적응에서부터 큰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탈북 청소년들은 학교 적응 면에서 남북한간 교과목(교육과정)의 차이에 따른 문제, 교수·학습방법의 차이에 따른 문제, 남북한의 교육풍토에 따른 문제, 교우관계의 갈등에 따른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남한사회의 가치관과 이념, 교육과정, 교육풍토, 원만한 인간관계 등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러한 교육체제와 이념에 대해서 일체감을 느끼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것은 북한의 학교체제에서 길들여진 관습과 행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처럼 탈북 청소년들이 겪는 부적응 양상에 주목하여 그들이 남한 학교에 잘 적응해 가면서 나름대로 삶의 방법을 터득해 나가도록 하는 재사회화 교육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탈북 청소년들의 현황 파악에서 시작하여(2장), 그들이 겪고 있는 남한학교 부적응 실태와 그 원인 분석(3장)을 하였다. 그리고 교육방안의 모색에 앞서 통일독일의 사례를 검토하여(4장) 他山之石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재사회화 교육의 기본방향을 통일대비라는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정체성 교육, 민주시민 교육, 평화교육, 민족공동체 교육이라는 이념적 지표를 설정하는 한편, 특히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실천적·단계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단계적 접근이란 특별 탈북청소년만의 특별반 운영, 남한학생들과의 연합활동, 탈북 학생의 남한의 일반학급으로의 편입이라는 세 가지 순차적 과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 탈북청소년만의 특별반 운영을 위한 실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안·제시하였다(5장).

탈북 초등학생들의 바람직한 학교 적응을 위한 방안을 요약·제시해 두기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 학생의 학교적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특설 학급을 신설하여 일반 학급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게 하는데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탈북청소년만의 특별반에서만 학습하다가 갑자기 일반 학급에 편입하게 되면 급격한 학습 환경의 변화를 느껴, 또 다른 적응을 요하게 되므로 평소부터 일반 학급의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우 관계, 사회성의 발달, 일반 학급에서의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탈북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해서는 탈북청소년만의 특별반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이 따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 제언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경험한다. 청소년기라는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체제가 전혀 다른 사회로의 이전은 이들 탈북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사회에의 적응이라는 과제를 부여하게 된다. 또한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와 남한 상황에서의 가치가 서로 상충되어 아미노적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들 탈북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한 개인으로 자리잡게 될 수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의 문제는 우리에게 현실적·정책적으로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탈북 청소년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이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문제가 발생

하면서 사실상 실제적인 측면에서 통일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시각도 있다. 통일이 서로 다른 체제에서 생활해 왔던 남북한 청소년이 이질감을 해소하고 동일한 정치·경제체제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탈북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문제가 통일로 인해 겪게 될 실질적인 문제들을 미리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탈북 청소년의 수가 계속 급증할 것에 대비하고 통일 후 이들의 새로운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탈북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과정을 통일 준비 과정의 일부로서 간주하여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방황과 혼란,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생각할 때, 통일 후 북한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 문제는 통일을 대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정부는 탈북 청소년에 대한 남한청소년이나 주민의 인식을 보다 우호적으로 바꾸는데 앞장서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대 국민 홍보와 의식교육을 통해서 탈북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짐이 아니라 통일한국을 함께 살아갈 우리의 이웃이라는 국민인식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탈북 청소년 지원을 담당하는 인원과 재정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서 탈북 청소년의 사회정착에 꼭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탈북 청소년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통일요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할 경우에 학비와 생활비를 지급하여 각 분야에서 통일대비요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 국민도 탈북자들이 통일 후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 문화, 심리적 통합의 선도자라는 생각으로 이들을 아량과 배려로서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불과 50여명에 못 미친 탈북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착하지 못한다면 통일 후 수천만 명 남·북한 주민의 사회·문화적 통합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탈북 청소년들과 남한 청소년간의 문화적, 심리적 차이를 차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차이를 가져온 구조적 배경을 이해하고, 사회 약자 층으로 새롭게 시작해야하는 탈북 청소년들이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1. 곽상만·김영준(1995), 「교육과정 국제비교」, 한국교육개발원
2. 김동규(1990), 「북한의 교육학」, 문맥사.
3. 민성길(2000), 「통일과 남북 청소년」, 연세대학교출판부
4. 박관용(1998) 『통일문제의 이해』, 대한기획
5. 박재운, 백성준(1992), 「독일의 교육통합」, 한국교육개발원
6. 북한이탈주민후원회(2000), 「북한이탈주민의 이해와 자원봉사」
7. 서정화(1997), 「주요 국가의 교육행정 제도」 한국교육개발원
8. 전우택(2000),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오름 출판사
9. 차기벽(1990), 『민족주의원론』, 한길사
10. 최희선(1991), 「선진국의 교육관리 및 교육과정 편제 운영체제」
11. 통일부 (2000), 「거주지보호 실무편람」 중앙도서관
12. 한만길(1997),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교육과학사

### <논문>

1. 강무섭외(1991),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대책”, 교육정책 자문회의자료
2. 강민석(1993). “민족공동체 윤리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통일교육의 접근방향”, 공주대학교 『논문집』, 제9집
3. 김경호(1997)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4. 김동배·이기영 (1999), “북한이탈자 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활동의 방향”, 『사회복지』 여름호
5. 김명세(1996), “북한이탈자의 사회적응은 민족화합의 예비과정”, 「북한이탈자들의 남한생활적응을 위한 대책」, 연세대통일연구원
6. 김명화(1998) “북한이탈주민의 실태 및 적응대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김영수(1996), “북한이탈귀순자 남한사회적응 실태조사” 통일연수원

8. 김영식(1987) “학제의 발전방향”, 교육개혁심의회
9. 김태완(1995), “남북이질성 교육을 위한 통일교육”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10. 민병천(1980), “남한귀순자의 자유사회 적응과정 실태 조사”, 통일원
11. 민족통일연구원(1996),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2. 박선경(2000),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3. 박종철외(1996),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4. ———(199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5. 박진(1998)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국방관리학 석사학위논문
16. 박희정(1998),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7. 손주환(1998),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8. 신세호(1993) 「독일교육통합과 과생문제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 오혜정(1995),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윤인진(1999), 「북한이탈자의 남한 사회 적응 실태와 지원 방안」, 통일교육원
21. ———(1999), “북한이탈자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제33집
22. ———(1999),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적 이해」, 통일문제연구소
23. 이금순(1999), 「북한이탈자 문제 해결방안」, 통일연구원
24. 이금순·송정호(1997),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 방안」, 민족통일연구원
25. 이기영(1998) 「북한이탈자 지원 민간단체와 정부와의 파트너쉽 연구」 98년도 북한 및 통일 문제 신진연구 지원 최종 보고서
26. ———(2000), 「하나원에서의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생 사회적응력 제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 통일부
27. ———(2000) “북한이탈 주민 남한사회 정착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평가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28. 이상만(2000), 「하나원 사회적응교육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방향」,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29. 장혜경·김영란(2000),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 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30. 최영표외 (1993),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Ⅱ)」, 한국교육개발원
31. 최현호(1999), “통일교육 방향에 대한 이론적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제1호
32. 전우택(2000), “북한이탈자 보호 경찰관들과 북한이탈자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분석”, 「통일연구」
33. 최영표외 (1993),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Ⅱ)」, 한국교육개발원
34. 통일연수원(1996) 「탈북 귀순자 남한 사회 적응 실태 조사」, 통일연수원
35. 통일원(1994),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와 사회통제」, 통일원
36. 한국교육개발원(1995), 「남북한 학생과 주민의 통일사회 적응 연구」
37. 한국청소년개발원(1994), 「독일통일과 청소년」(남북한 청소년의 동질성 회복 방안에 관한 연구Ⅲ)
38. 한만길(1994) “학교통일교육의 사회과학적 접근모색”, 「통일문제연구」, 제6권 2호
39. 한만길(1997), 「북한이탈 주민의 남한 교육 적응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기타 문헌>

1. 「교육개발」, 124호(가을호, 2000), 한국교육개발원,
2. 「대한가정학회지」(제38권 5호, 2000)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
3. 「한국사회학」 3집(가을호, 1999)
4. 「통일경제」(1999. 8. 통권, 제56호), 현대경제연구원
5. 하나원, 「주요 업무현황」(제2차 자문위원 회의자료, 2000. 12. 15)

#### <인터넷 사이트>

1.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홈페이지 <http://www.dongposarang.or.kr/>
2. <http://www.durihana.com/2000131.htm>
3. [http://www.hani.co.kr/section-003000000\\_2000/003000000200012211457696.htm](http://www.hani.co.kr/section-003000000_2000/003000000200012211457696.htm)

[Summary]

**A Study on Re-Socialization Education for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in case of elementary school**

Hwang Eun Shil

National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o Seong Jun

The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are increasing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defector population. They should adjust themselves to school in the South, and should acquire how to lead a life in the new society. However, it's not easy for them to do it, and they actually encounter a lot of difficulties, and there is a need to devise a new type of education to speed up their re-socialization for successful school adjus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ccordingly, to examine the statu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 youth, the realities of their school maladjustment, and its cause. Before making any attempts to explore a proper educational method, the Unified Germany case was studied to learn a good lesson. And then the basic directions and ideological guidelines for re-socialization education were determined on a long-term basis as part of efforts to prepare for national unification: national identity educati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eace education and national community education. And a practical, sequential approach to re-socialization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s presented.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the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1.

The sequential approach consisted of three stages: operation of special defector class, activities combined with South Korean students, and integration of defector students into regular class. And finally, a feasible education program for special defector class was designed.

The way to accelerate the adjustmen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 students to elementary school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pecial class should be created to back up the smooth school adjustment of defector students and help them have the basic ability to learn in regular class.

Second, the sudden transfer to regular class might possibly cause another maladjustment because of the change of learning environment. Defector students should have a chance to join regular class students to experience social relations and regular class activities in advance and to develop their own sociability.

Third, in order to make their school adjustment more successful, it seems effective to prepare a special, separate curriculum for defector student class.